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번호	-										
사업 분야	사회과학	신청분야	사회/ 인류/ 사회복지	단위	전국	구분	교육연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일반	사회복지학	기타 사회복지학						
	비중(%)	70		30							
교육연구 단명	국문)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사업단										
	영문)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the fair and inclusive society: Cultivating innovative, cooperative, and integrated experts										
교육연구 단장	소 속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직 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성명	국문	남석인	전화		02)2123-6218					
				팩스							
		영문	Nam Seok In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212)	2차년도 (213~222)								
	국고지원금	214	427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자체평가 대상기간		2020.9.1.-2021.8.31.(12개월)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남석인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사회복지	포용사회	혁신인재 양성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국제적 협력
	융합적 역량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통합형 미래사회복지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은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에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이 ‘공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난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이 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목표 1.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역량 강화 ○ 성과1.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과정 구축 -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 구축 -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4대 가치(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를 함축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 성과2.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 연구수행 능력 증진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 개최 (하계/동계 연 2회) - 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 성과3.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양성 - 학부-대학원 유연화 프로그램 운영 - 학문후속세대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목표 2.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인재 양성 ○ 성과1. 융복합 교과목 신설 및 확대 - 학제간 융합 커리큘럼 개발 - 교내 고등교육 혁신원의 지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교과목 확대 ○ 성과2.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 혁신 융합적 연구를 확대·강화 (과학기술과 사회복지, 생명공학과 사회복지 등의 융합 연구 수행) ○ 성과3.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 - 연구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학위논문 및 공동연구 지원) -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논문지도 장려 (사회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등) □ 목표 3.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외 복지 격차 해소 기여 ○ 성과1.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및 현장과의 협력 ○ 성과2.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체계 확립 □ 목표 4.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 성과1.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사업단 소속 대학원 내 자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과 참여대학원생 수강 의무화		

	○ 성과2.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위기 학생을 돕는 교내외 상담시스템 구축 ○ 성과3. 대학원생 모두를 포용하는 장학금 혜택 확대 - 자체 대응자금 투입하여 비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및 학술 활동 지원
교육역량 영역 성과	■ 본 사업단은 지속적인 BK 사업의 지원으로 국제적인 역량의 창의인재를 배출하는 성공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옴. 4단계에서는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융합적 혁신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성과 1. 비전추진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개편과 추진 -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 구축: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으로 자율융합 가능 - 세부전공 별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의 가치를 담고 커리큘럼 개편 -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연구지도 + 연구지원사업 → 연구성과) ○ 성과 2. 신 사회문제에 선응적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외부 전문가 특별강의 개설: 참여대학원생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섭외 - 모든 교수진이 참여하는 팀티칭 강의 (벤치마킹 UMSSW의 교수진 참여) - 현장 이해 증진과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형 수업의 강화 ○ 성과 3.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 대학원 자체 장학기금을 통한 우수 인재확보와 비참여 대학원생 지원 - 전용공간의 확보와 지속적 공간개선 작업으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논문 인센티브 및 영어논문 지원 - 다양한 학제 편성: 학·석사 연계 시스템과 UT세미나 - 입시전형 설명회 개최 (매 학기마다 진행) + 주요 언론매체에 입학전형 홍보 ○ 성과 4. 참여대학원생의 취업 우수성 - 본 사업 참여이력 졸업자의 높은 취업률 달성(2021년 2월 졸업자 기준 75%) - 취업자들의 질적 우수성: 사회문제의 선응적 대응을 위한 포용적 인재 및 혁신적 인재, 사회문제해결형 사회복지전문가, 이론과 실천을 가교하는 혁신인재 배출 ○ 성과 5.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주제로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업적 달성 (지난 1년간 국내논문 29편, 국제저명학술논문 4편 게재) - 국내외 학회에서 학문 간의 소통과 지식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결과 달성 (지난 1년간 국내학술대회 구두 1건과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5건, 구두 4건 발표) ○ 성과 6. 신진연구인력의 우수성 - 뛰어난 연구의 실적과 더불어 참여대학원생 대상의 특강, 포럼 진행, 멘토링 등을 통한 교육과 다양한 연구사업 참여로 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다채로운 역할 담당 ○ 성과 7.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우수성 - 참여학생의 전공이론과 실천 지식을 함양을 위한 전문영역의 특화된 과목 기획과 제공 -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 추진을 위해 새롭게 개편한 커리큘럼에 기반 ○ 성과 8. 외국인 전임교수의 교육의 국제화 기여 - 국제공동 교육: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와의 강의교류 - 본 사업목표 달성위한 소속 외국인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 적극 동참

연구역량 영역 성과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계획 대비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성과 1.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지원 및 확대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교수의 연구논문 발표 및 저서 발간 (지난 1년간 국내논문 40편, 국제저명학술논문 10편 게재, 저서 5권) - 사회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 19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회 협력적인 해결방안 제시 ○ 성과 2. 연구역량을 키우는 교육 - 전체 연구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운영 - 대학원생의 연구수행 능력 강화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 개최 (연 2회) ○ 성과 3.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학위논문지도 장려 및 진행 - 참여교수의 융합적 연구 확대·강화 (인간공학/생명공학/간호학 - 사회복지학과의 융합) ○ 성과 4.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 - 학생이 주도하는 대학원생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학위논문 및 공동연구 지원: 산정기간 내 총 5명의 학위논문 작성자 지원) - 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장려 및 지원 (2020-2학기 과제 1건, 2021-1학기 과제 3건) ○ 성과 5.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및 현장과의 협력 (어깨동무사업) - 정부 연구 및 다양한 산업체 연구 수주 (지난 1년간 정부연구비 총 719,953천원, 산업체 연구비 총 17,467천원 수주) ○ 성과 6. 국제공동연구 확대 - 국외 연구진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예시: 벨기에 KU르우벤 대학, 대만국립대학, 리투아니아 국립 빌뉴스대학 의과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 캐나다 원저대학,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의 1:1 매칭교류 ○ 성과 7.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과 인권보장 강화 - 사업단 소속 대학원 내 자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과 참여대학원생 수강 의무 -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계획 대비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UMSSW와의 긴밀한 상호교류 및 협력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벤치마킹 UMSSW와의 계획 대비 진행 지연 ○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연구실적 장려 필요 - 참여대학원생의 국내 연구실적 대비 국제 연구실적이 부족 ○ 신진연구인력의 행정업무 부담과 연구중심 환경 부재 -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한 연구몰입도 감소 - 사업단 내 교육·연구의 주도적 기회 부족 ○ 참여대학원생의 혁신적 융합연구 접근성 제한 - 최근 융합연구의 동향과 방법론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차년도
추진계획**

- 본 사업단은 지난 1년간 4단계 계획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교육·연구 관련 시스템 개편을 진행해옴. 차년도에는 이 기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요소를 관리하고 격려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고자 함
- 계획 1. 4대 비전 기준 현 교육과정 지속적 점검과 커리큘럼 개발 추진
 - 4대 비전인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반영한 교육제도 개선과 매 학기 개편안 기준 주제를 담은 커리큘럼 개발
- 계획 2. 참여대학원생 공동연구와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참여대학원생 대상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대상들이 혜택받도록 격려
 - 지원성과로 연구결과물과 취업성공의 선순환 구조 구축
- 계획 3. UMSSW와의 긴밀한 상호교류 및 협력
 - 차년도 UMSSW와의 구체적인 교육·연구 교류 논의와 컨퍼런스 개최안 구체화
- 계획 4.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석학 논문지도 및 공동연구 강화
 - 참여교수의 공동연구자 해외석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수준의 논문작성 지원
- 계획 5.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권 강화와 역량강화 기회 제공
 -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전담인력 채용
 - 대학원혁신지원사업에서의 주도적 역할 부여와 교육·연구역량 증진 기회부여
- 계획 6. 혁신적 융합연구 세미나 개최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융복합 주제의 연구 세미나 개최 예정 (2022년 상반기 세미나 개최를 목표로 준비: 의학, 공학, 체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을 포용)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남석인	영 문	Seok In Nam
소 속 기 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남석인 교수는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영역의 전문적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음. 교육 및 연구 측면에서는 국제저명학술지에 최신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연구성과에 기반한 사례중심의 토론식 수업은 혁신적 교육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는 사회적 실천을 위함이라는 철학에 기반하여 교내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교내에서는 사회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학과장으로 재임중이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연세라이프아카데미센터장, 창의적 학생활동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원 혁신활동센터장을 역임하며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음. 대외적으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음. 또한,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윤리위원장과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구윤리 강화에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 다수 사회복지 실천기관의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워크숍과 수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실천현장에서 의뢰하는 위기사례에 대해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한 성과가 사회복지 현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모색해 왔으며, 우리 사회가 봉착한 불공정성과 배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연구역량

-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영역에서 주요 연구성과를 국제저명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함. 해외학자들과 연구 중심의 교류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날 범국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혁신적 사고로 제시하고 있음
- 노인복지 영역은 삶의 의미에 대한 천착으로 측정도구, 집단상담 프로그램, 스마트 기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음.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노인복지 실천현장에 도입되어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음. 애플리케이션 역시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위기 노인의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의료사회복지 영역의 직무분석 연구성과는 의료사회복지사 직무 재편의 국제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국책 연구로 포항공과대학교 인간공학연구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언어병리팀과 함께 “노인 삼킴 기능과 관련된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를 5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음. 연구성과가 인정되어 프로젝트가 매년 연장되고 있으며, 기술 및 보건 영역과의 융합 연구를 기반으로 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교육역량

- 교육을 통한 실천역량 강화에 주목하여 노년학 관련 학문간 융합방법론, 철학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와 실천,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직접 진행한 연구와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구체적 연구 활용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을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5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019년

에는 5년 연속 우수강의교수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최우수강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교육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행정역량

- 현재 사회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학과장, BK21플러스 사회복지교육연구단장 등의 보직을 동시에 수행하며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결과 본 교육단이 3단계 종합평가에서 복지/신방 분야에서 전국 1위라는 과업을 달성하였음
- 학교 차원에서 고등교육혁신원 혁신활동센터장과 연세라이프아카데미센터장 보직을 수행하면서 창의성과 인성을 2대 핵심가치로 추구하며 교내 행정에 참여하였음.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혁신적 학생 활동 모델을 학부 과정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대학원 차원의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을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추진해 오고 있음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사회복지대학원	20년 2학기	10명	9명	90%	외국인 겸임교수로 참여기준 미달
	21년 1학기	10명	9명	90%	외국인 겸임교수로 참여기준 미달

〈표 1-2〉 최근 1년간(2020.9.1.~2021.8.3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강철희	-	-		
2	김재엽	-	-		
3	김진수	-	-		
4	남보영	-	-		
5	남석인	-	-		
6	박수경	-	-		
7	송인한	-	-		
8	최수찬	-	-		
9	최재성	-	-		

〈표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비율 (%)
사회복지대학원	20년 2학기	117	16	14	38	11	29	7	0	0	162	17
	21년 1학기	112	13	12	37	12	32	7	1	14	156	17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약 6% (9 : 156, 21학년 1학기 기준)							

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이 ‘공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지님

교육연구단의 비전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

한국사회복지의 한계와 도전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

배제된 집단과 사각지대

비전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 실천역량 강화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 인재 양성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외 복지 격차 해소 기여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1.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과정 운영 2. 사회문제 해결 참여형 실습 교육 강화 3.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4.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양성	1. 융복합 교과목 신설 및 확대 2.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3.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과 신고용 영역 개척	1.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2. 글로벌 복지공동체를 위한 제3세계 복지 전문 인력 양성 3.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 확대	1. 학생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교과과정의 지속적 개편 2.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3.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4. 대학원생 모두를 포용하는 장학금 혜택 확대

【교육연구단의 목표와 달성정도】

-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이 ‘공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난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이 달성해온 노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목표 별 대표성과 >

목표	성과
목표 1.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역량 강화	성과1.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과정 구축 -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 구축 -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4대 가치(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를 함축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성과2.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 연구수행 능력 증진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 개최 (하계/동계 연 2회) - 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성과3.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양성 - 학부-대학원 유연화 프로그램 운영 - 학문후속세대 협력 프로그램 운영
목표 2.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인재 양성	성과1. 융복합 교과목 신설 및 확대 - 학제간 융합 커리큘럼 개발 - 교내 고등교육 혁신원의 지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교과목 확대
	성과2.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 혁신 융합적 연구를 확대·강화 (과학기술과 사회복지, 생명공학과 사회복지 등의 융합 연구 수행)
	성과3.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 - 연구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학위논문 및 공동연구 지원) -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논문지도 장려 (사회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등)
목표 3.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외 복지 격차 해소 기여	성과1.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및 현장과의 협력(예시: 어깨동무 산업)
	성과2. 글로벌 복지공동체를 위한 제3세계 복지 전문 인력양성 -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체계 확립)
목표 4.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성과1.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사업단 소속 대학원 내 자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과 참여대학원생 수강 의무화
	성과2.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위기 학생을 돕는 교내외 상담시스템 구축
	성과3. 대학원생 모두를 포용하는 장학금 혜택 확대 - 자체 대응자금 투입하여 비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및 학술 활동 지원

목표 1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역량 강화

○ 성과1.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과정 구축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 구축

-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이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균형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을 구축해 왔음. 10개의 세부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수(이 중소속의 외국인 교수도 본 사업단의 자체 지원으로 참여 예정)가 사업단에 참여하여, 한국의 취약계층과 사회문제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과정을 구성하였음
- 세부전공 분야는 다음의 10개 분야임

< 세부전공 분야 >

1) Philanthropy ·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	6) 장애인복지 · 취약계층복지
2) 가족청소년복지 · 군사회복지	7) 정신보건 · 의료사회복지
3)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험	8) 노동과 산업복지
4) 여성복지 · 다문화 · 빈곤	9) 사회복지조직관리 · 기획 · 평가
5) 노인복지와 세대공존	10)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4대 가치(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를 함축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 한국의 다양한 취약계층과 사회문제를 포괄하고 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의 4대 가치를 함축적으로 적용하고자 지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여,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개편된 커리큘럼을 적용해오고 있음
- 본 교육연구단은 전문대학원의 강점을 살려 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교육역량 영역-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서 제시하였음)

○ 성과2.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 연구수행 능력 증진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 개최 (하계/동계 연 2회)

- 4단계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욕구 조사 결과에 기반한 통계방법론 워크숍을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함. 새로운 사회환경의 조성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문제를 탐색하고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유용하고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워크숍을 설계하였음. 또한 2021년 하계에는 본 사업단의 BK지원으로 양성된 후속연구세대를 특강자로 섭외하여 연구뿐만 아니라 학업 및 진로설계 등의 주제로 참여학생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 아래는 개최된 워크숍의 개요임

1. 2021년 겨울 사회복지조사분석 특강 시리즈

1) 주제: SPSS와 Stata를 통한 기초통계분석과 Process Macro의 활용

! 일시 ! 2021년 2월 1일(월) ~ 2월 5일(금) 09:00~12:00

! 장소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진행

! 강사 ! 정규형 교수(세명대 사회복지학과)

! 주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2) 주제: R기반 머신러닝 기초: 입문

! 일시 ! 2021년 2월 15일(월) ~ 2월 19일(금) 09:00~12:00

! 장소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진행

! 강사 ! 백영민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 주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2. 2021년 하계 연구력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조사 연구특강시리즈

1) 주제: 후속연구세대와의 만남: 3단계BK 선배연구자와 4단계 BK 후배연구자의 교류

! 일시 ! 2021년 8월 18일(수)~8월 20일(금) 오전:09:00~12:00 | 오후:13:00~16:00

! 장소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진행

! 주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 강사 ! 후속연구세대 (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5인)

김준표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회귀분석 총정리 : 로지스틱 회귀분석부터 이중·다중매개중심

정규형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정책연구에서 활용하는 기초통계와 주제별 분석법

이종화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조교수)

: 동일방법편의의 극복과 외형상 무관해 보이는 회귀모형(SURModel)의 적용

이 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사업단박사후연구원)

: R를 활용한 잠재계층모형과 랜덤포레스트분석

채주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한 측정도구 개발과정의 실제

- 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 대학원생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였음. 2020-2학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이라는 과제 1건과 2021-1학기에 ‘한부모 가정 성인자녀의 자립과정과 노동시장 참여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COVID-19로 인하여 봉사활동 참여가 중단된 노인의 변화와 적응과정 탐색: 노인종합복지관 봉사활동 참여 노인 사례를 중심으로’, ‘20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삶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피해 이후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의 과제 3건을 지원하였음. 이후에도 대학원생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할 예정

○ 성과3.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양성

학부-대학원 유연화 프로그램 운영

- 학·석사 연계 시스템 도입하여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부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회복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본 대학의 성적 우수 학부생이 대학원 수업 수강을 희망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됨. 현재 2020년 2학기부터 홍이준 학생 1명이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학문후속세대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졸업생-재학생 간 멘토링 지원
 - 학업 및 취업 등 상담 및 진로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졸업생과 현 BK 사업단 참여 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희망하는 경우 멘티의 연구 및 현장의 관심사에 따라 적합한 멘토를 매칭해 주었고 그들의 멘토링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였음. 그결과 참여대학원생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확대, 선후배 간 유대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음. 아래는 대표적인 멘토링 활동의 예시임
- 학문후속세대가 학부생을 지도하는 UT세미나(Undergraduate Tutorial Seminar) 신설 및 확대
 - 학문후속세대인 박사 및 박사과정의 선배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최근의 경향과 지식을 교육하고, Tutor의 입장에서 진로 설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과목을 개설하였음. 실정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0-2학기 6과목, 2021-1학기 7과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도	과목명	강의자
2021-1	나에게 맞는 문헌 찾아읽고 보고서 작성하는법	유지은
	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상담과 대화연습	황현주
	사회복지분야 연구의 기초와 논문작성	양승민
	사회복지 자료해석과 주제찾기	채주석
	새로운 노인인식과 노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최유나
	신사회 장애가정의 이해와 접근	박선원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주요이슈 및 실천	유정원, 이은정
	합계	7과목
2020-2	노인복지 자료해석과 연구주제의 발견	채주석
	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상담과 대화연습	황현주
	문헌검색 놀면서하기	유지은
	사회복지전공분야	양승민
	장애가정의 신사회적위기	박선원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주요이슈 및 실천	유정원, 이은정
	합계	6과목

목표 2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인재 양성

○ 성과1. 융복합 교과목 신설 및 확대

학제간 융합 커리큘럼 개발

- 외부 현장의 전문가와 교내외 학자들을 초빙하여 학제간 융합을 고려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음. 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김승욱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초빙하여 참여대학원생에게 현장과 타 학문의 새로운 견문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본교 타학과의 백영민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와 양재진 교수(행정학과)와의 공동개설과목을 추진하였음. 실정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0-2학기 3과목, 2021-1학기 3과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도	과목명	강의자
2021-1	구조방정식모형	백영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신사회적 위험 대응의 윤리와 철학	김승욱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정신치료와 커뮤니티상담	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합계	3과목
2020-2	BK21 foundation II (사회문제론)	김승욱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영화와 정신건강담론	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한국복지국가론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합계	3과목

교내 고등교육 혁신원의 지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교과목 확대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창의성 및 사회혁신 역량 개발을 함양하는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개발
- 교내 고등교육혁신원의 융합교육 플랫폼과 인프라 지원으로 다양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음. 실정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0-2학기 5과목, 2021-1학기 6과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도	과목명	강의자
2021-1	사회복지법제	김진수
	가족복지론	김재엽
	노인융복합연구세미나	남석인
	다문화연구세미나	남보영
	장애연구이론세미나	박수경
	융합연구방법론	송인한
	합계	6과목
2020-2	사회보장론	김진수
	신 가족위기와 사회복지실천세미나	김재엽
	고령친화도시와 세대공존	남석인
	포용과 사회복지	남보영
	장애와 복지기술	박수경
	합계	5과목

○ 성과2.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혁신 융합적 연구를 확대·강화 (과학기술과 사회복지, 생명공학과 사회복지 등의 융합 연구 수행)

- 장애인 대상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연구
 - 박수경 교수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을 통해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음.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최첨단의 기술(AI, Deep-Learning)등을 장애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융복합적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로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지원과 함께 ICT와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결합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적용 중임
- 노인 및 세대 간 공존 연구
 - 남석인 교수는 노인성 삼킴장애는 노년기에 질환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며, 많은 노인들이 삼킴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혁신적인 융합연구로 진행하였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융합과 더불어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적인 다학제적 협력으로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의 융합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바른 ICT 환경 구성 해법을 제시
 - 김재엽 교수는 2020년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를 공저하였음. 본 저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개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진단함.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의 추세와 특성 그리고 자살 경향성을 분석하여 코로나 시대에 취약한 청소년의 ICT 환경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제언을 통해 청소년의 바른 ICT 환경 구성 해법을 제시

- 포용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융복합 주제의 연구 세미나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융복합적인 연구 시도를 지속해서 시도하고자 함. 의학, 공학, 체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을 포용할 수 있는 주제의 연구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표에 대하여 융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협력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현재 2022년 상반기 세미나 개최를 목표로 계획 중임

○ 성과3.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

연구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학위논문 및 공동연구 지원)

- 연구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 학위논문 작성 시 설문 조사 또는 인터뷰 조사 등의 자료수집비용(박사 1인당 50만원, 석사 1인당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산정기간 내 총 5명의 학위논문 작성자에게 1,737,200원이 지원되었음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논문지도 장려 (사회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등)

-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논문지도 장려
 - 융합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을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로 포함할 것을 장려하였음. 그 결과, 이은정(연세대학교 사회과), 최효식(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윤민석(서울연구원), 민인식(경희대 경제학과), 이해님(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등의 다양한 영역의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융합적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목표 3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외 복지 격차 해소 기여

○ 성과1.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및 현장과의 협력

- 어깨동무사업(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일환)
 - 본 BK사업단이 속해있는 연세대학교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연세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지역대학 우수연구자(팀)와의 공동연구사업인 『어깨동무사업』을 공고하였음.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기획된 본 BK사업단의 사업은 ‘민간 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문후속세대 3인의 교수(김준표, 경상대학교; 정규형, 세명대학교; 이종화, 강남대학교)와 함께 기획하였고 최종 연구지원과제로 선정되었음. 특히 BK사업의 지원으로 성장한 신진연구인력과 학문후속세대 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협력의 예시로 들 수 있음

○ 성과2.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체계 확립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UMSSW) 교수진의 특강

- 2021년 1학기동안 현대사회복지세미나 II 수업을 통해 UMSSW의 학장을 포함한 총 3명의 교수진의 특강을 진행하였음. 2021년 5월 31일 약 2시간 동안 Paul Sacco 교수가 문제도박(problem gambling)의 실태와 심각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한국사회에서 도박문제와 도박중독자들을 포용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음. 2021년 6월 7일에는 Corey Shdaimah 교수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bottom-up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이 사회복지정책에서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과정을 배울 수 있었음. 2021년 6월 21일에는 Univ.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학장이자 교수인 Judy Postmus 박사가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Methods(CBPR)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지역주민이 연구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연구과정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CBPR에서 새로운 연구 참여자의 역할과 역량증진 영역을 깨닫게 됨

목표 4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 성과1.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사업단 소속 대학원 내 자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과 참여대학원생 수강 의무화

- 정직하고 공정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음
- 학위논문 작성자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여 졸업이 불가하도록 함. 또한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위원회(IRB) 심의 승인을 권장하고 있음
- 2020년 2학기부터 본 대학원 공통교과목으로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교과목을 개설하여 BK 사업시 참여대학원생에게 최소 1회 의무수강을 권하고 있음

○ 성과2.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위기 학생을 돕는 교내외 상담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 휴학, 자퇴 등을 고려하거나 진로, 대인관계, 적응 및 정서문제, 가족관계, 이성문제 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원생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적절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상담연계에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을 요구하였음
- 상담요청 학생이 희망하는 인력 pool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공지

상담 인력	내 용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정신건강 전문가인 송인한 교수(미국 LCSW)와 남석인 교수(의료사회복지사)가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 지원
교내 심리상담소 연계	학습과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을 탐색하는 전문심리검사를 바탕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예방 교육 등이 이뤄짐

○ 성과3. 대학원생 모두를 포용하는 장학금 혜택 확대

자체 대응자금 투입하여 비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및 학술 활동 지원

- 자체 대응자금을 통한 장학금을 투입하여 비참여 대학원생 지원
 - 본 대학원에서는 자체대응자금으로 성적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행정조교장학금, 연구조교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 등을 지급
- 대학원 자체 대응자금을 활용하여 비참여 대학원생의 학술 활동 지원
 - 참여 학생과 비참여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게재 시 동일한 인센티브 지급
 - 참여 학생과 비참여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여를 동일하게 지원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사업 진행시 건의 사항

- 코로나 19로 인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한 이월과 변경이 원활하도록 요청 (예: 해외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온라인 참가비 지원 외에 집행이 되지 못하는 항공권/체류비 등을 차기년도에 사용가능)

○ 신진연구인력으로서 BK21 사업 참여시 건의사항

- 신진연구인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지원사업이 추가되었으면 함. 예를 들어 BK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연구지원사업이 마련

II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① 현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 본 대학원의 현행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관련 필수과목과 사회복지학의 분야별 세부 전공(전공심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대학원의 강점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세부전공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융합 가능하도록 선택 교과목 체계를 구축하였음
- 교과목의 구성은 전공공통기초, 전공공통필수, 전공공통선택, 그리고 다중세부전공으로 운영되는 전공기초, 전공심화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전문가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의 미시적 영역과 거시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대학원은 학생들이 사회복지 임상 및 실천의 미시적 분야와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의 거시적 분야 간의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다중세부전공(Double or Triple Specialization)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본 사업단 교과과정 운영 현황

(2021년 8월 기준)

구분	4단계 현재	
	내용	비고
전공공통 기초	각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강이 요구되는 과목 *비전공자: 필수 이수 과목(졸업학점 포함) *전공자: 과목 이수 면제 가능(과목면제 시 졸업학점 불포함)	3과목(9학점)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전공공통 필수	각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 이 요구되는 과목	석사 4과목(12학점) 통합 3과목(9학점) 박사 2과목(6학점)
전공공통 선택	각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강이 요구되는 과목	필수 이수학점 없으나 졸업학점에 포함
전공제도	다중세부전공(Double or Triple Specialization)제도	
전공기초	다중세부전공에 따라 기본으로 수강이 요구되는 과목	2과목(6학점)
전공심화	전공별 개설된 과목	제1전공: 2과목(6학점) 제2전공: 2과목(6학점) 제3전공: 2과목(6학점)
총 이수학점	석사/박사: 42학점/ 통합: 63학점	

< 세부 연구분야 >

1) Philanthropy·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	2) 가족청소년복지·군사회복지
3)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4) 여성복지·다문화·빈곤
5) 노인복지와 세대공존	6) 장애인복지·취약계층복지
7) 정신보건·의료사회복지	8) 노동과 산업복지
9) 사회복지 조직관리·기획·평가	10)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 세부 연구분야는 10개*로 지난 2019-2학기에 한국의 다양한 대상과 사회문제를 포함하고 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의 4대 가치를 함축적으로 적용하고자 분야명과 범위를 재편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전공 선택 시 생애주기적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한 협력 및 융합적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하고 있음
- 10개의 세부전공분야는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각 연구 분야와 연계되어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신 사회문제의 복합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역량의 증진시켜줌. 본 사업단이 제시하는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은 예측 불가능한 신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참여 학생들의 전문가로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중심의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서 융합적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② 신청서 운영 계획 대비 실적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으로 교육과정 구체화 및 확대

- 본 사업단은 현 4단계 BK21 사업에서 포용, 공정, 혁신, 협력의 4대 비전으로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확장해옴

○ 세부전공 별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추진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편

- 본 사업단은 세부전공 별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 추진에 적합한 커리큘럼으로의 개편을 위해 4단계 진입부터 지속적으로 교수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을 계획했음. 이후 1년 동안 계획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개설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전문대학원의 강점을 살려 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설할 것임. 아래는 커리큘럼 개편안에 실제 개설된 과목을 표시한 것으로 계획 대비 진행도를 파악할 수 있음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강철희 (Philanthropy·비영리조직및 사회적기업)	- 비영리조직관리와 사회복지(2021-1학기)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적기업과정신과 사회적기업(2020-2학기) - 신사회위기와 비영리섹터	- 자선과 사회복지 - 재단과 사회복지 - 신사회위기와 기업사회공헌	- 혁신과 비영리조직 및 사회서비스 - 자선 및 비영리조직연구 세미나(2020-2학기)	- 협력행동 이해: 사람과 조직 - 이타주의와 사회복지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 비영리 조직과 자원개발: 모금(2021-1학기) - 비영리 조직관리와 사회복지(2021-1학기) - 비영리조직 마케팅	
김재엽 (가족청소년 복지·군사회복지) * 보직과 연구년으로 인한 개설제한 존재	- 가족복지론(2021-1학기) - 청소년복지론(2020-2학기)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신가족위기와 청소년복지 - 신가족위기와 부부치료(2021-1학기) - 신가족위기와 가정폭력	- 포용적 가족복지와 가족치료(2020-2학기) - 신 가족복지와 사회통합 - 군사회복지세미나	- 혁신적 TSL 가족치료 - 뇌생명사회적 패러다임의 신 가족복지 - 생명의학과 사회복지	- 신 가족 위기 진단 - 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적 접근 - 신가족위기와 TSL 세미나
김진수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 퇴직기한이 가까워옴으로 인한 추후 개설 제한 가능성	- 사회보장론(2020-2학기) - 사회복지법제(2021-1학기)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보험제도비교론 I & II (2020-2학기, 2021-1학기) - 사회복지경제	-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험 - 노후보장체계론 - 최저보장의 당위성과 기준 - 비정형 근로자의 차별: 국제 비교 - 사회복지정책세미나-장기요양제도(2020-2학기)	4 차 산업혁명에서의 노동 시장 - 신 빈곤과 사회보험 - 경제사회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 - 사회보험 진화론	- 건강보험체제 국제비교 - 복지국가 재편론 - 공적연금 개혁론 - EU의 사회 정책
남보영 (여성복지·다문화·빈곤)	- 포용과 사회복지(2020-2학기) - 사회복지조사론(2021-1학기) - 자원봉사론 - 사회복지자료 분석론(2020-2학기)	-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가정 양립(2021-1학기) - 저출산과 여성 - 성평등과 여성정책	- 빈곤과 여성 - 사회적배제와 질적연구방법론 - 다문화이주민 포용과 사회통합	- 다문화이주민의 삶과 복지 - 다문화가족과 여성복지 4차 산업혁명과 여성복지	- 사회적배제연구세미나 - 여성복지세미나 - 다문화연구세미나(2021-1학기)
남석인 (노인복지와 세대공존)	- 노인복지론(2021-1학기) - 질적연구방법론(2020-2학기)	- 초고령사회와 노년학 - 만성질환과 노년기불평등	- 고령친화도시와 세대공존(2020-2학기) - 지역사회와	- 노인융복합연구세미나(2021-1학기) - 노인 삶의 의미와	- 노인상담의 이론과실제 - 노인집단상담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연령차별과 세대갈등	노인위기관리 존엄한 노년의 삶과 사회참여	철학 4차산업혁명과 노인복지의 미래	노인복지실천과 기관협력
박수경 (장애인복지·취약계층 복지)	- 장애인복지론 - 사회복지정책론(2020-2학기)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020-2학기, 2021-1학기)	장애연구이론세미나(2021-1학기) - 장애와 소득보장 - 장애와 고용	- 장애와 사회참여 -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복지(2021-1학기) - 장애와 가족	장애와 복지기술(2020-2학기) - 장애인복지와 리빙랩 - 발달장애와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연구세미나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과 사회복지
송인한 (정신보건·보건의료사회복지)	- 정신보건사회복지론(2021-1학기) - 사회복지실천기술론(2020-2학기) - 의료사회사업론(2020-2학기)	- 건강과 사회복지 - 재난과 사회복지 -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이슈	- 건강·정신건강 불평등(2020-2학기) - 안전과 손상 관리 - 건강 및 정신건강 개별 연구지도	융합연구방법론(2021-1학기) - 보건의료복지통합세미나 - 신 사회문제와 학제간 융합방법론	- 첨단기술과 정신건강세미나 - 학제간연구방법세미나 - 보건분야 사회과학자를 위한 글쓰기
최수찬 (노동과 산업복지)	- 산업복지론(2020-2학기) - 사회복지실천론(2021-1학기) - 사례관리론	- 저소득 근로자 지원사업의 공정 운영과 실제 - 실업과 사회복지 - 여성과 노동 불평등 인권과 산업복지세미나(2020-2학기)	- 영유아보호와 산업복지 - 이주노동자와 포용적 노사관계 - 약물남용근로자 보호와 치료	- 일과 스트레스 - 혁신적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자 복지 세미나	- 협력적 산업 관계론 - 가족친화경영과 협력적 기업복지 일과 건강(2021-1학기)
최재성 (사회복지조직 관리·기획·평가)	- 사회복지행정론(2021-1학기) - 지역사회복지론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서비스조사평가 신사회문제와 사회복지기획(2020-2학기) - 사회복지비용분석론 - 신사회복지프로그램관리론	-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세미나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경향분석(2021-1학기)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설계(2020-2학기)	- 창의적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사례연구 -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 사회복지조직과 네트워크 - 실험 및 유사 실험설계 방법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Michael G. Vaughn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 Social Problems Correctional Social Services(2021-1학기)	- Research seminar on correctional social services - Research seminar on crime & criminal justice	Research seminar in drug abuse & addiction(2021-1학기) - Interventions for prisoners' children & family - Inclusive welfare society for citizens with criminal record	- Innovative interventions on recidivism - Violence and mental health disorders: causes, treatment, and policies	Global Perspective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전체교수 팀티칭 강의		현대사회복지세미나 I, II (BK 세미나) (2020-2학기, 2021-1학기)			

○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추진에 적합한 대학원 입시기준 전환

- 본 사업단은 4단계 BK사업에서 내세우고 있는 4대비전(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에 맞추어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입시기준을 변경하였음. 각 비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변경 전	변경 후
총점: 200점 만점 - 서류전형: 100점 만점 - 면접전형: 100점 만점	총점 200점 - 서류전형: 100점 만점 - 면접전형: 100점 만점 (공정·포용 40점, 혁신 30점, 협력 30점)

○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수업에서 얻어진 연구주제를 실제 연구로 구현하도록 지원하였음. 예를 들어 2020년 2학기에 남석인 교수가 강의한 ‘질적연구방법론’에서 참여학생의 연구주제를 지도하고 BK는 학생간 연구지원사업으로 통해 지원함으로써 실제 학술지 게재의 성과로서 도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③ 향후 추진계획

- 계획한 커리큘럼 개편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남은 4단계 사업동안 달성하도록 하겠음. 또한 현재 한국의 상황과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한 코로나 등의 현장과의 핵심이슈를 반영하도록 수업개설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반영하겠음.
- 참여교수의 연구년 혹은 퇴직에 의한 커리큘럼 계획안의 진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참여교수 개인의 역할에 의지하기보다 교육과정 시스템 구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참여교수의 변동에도 사업단의 계획을 달성 가능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① 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 생애주기 사회문제별 맞춤형 인간복지 중심으로의 교육 커리큘럼 전환, 사례연구 및 문제 중심적 접근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복지 벤처가 육성, 실증적 근거기반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해 옴
- 본 사업단은 교수 전공 중심별 정책·행정·실천 등에서 아동·청소년·노인·근로빈곤·사회보장 등 생애주기/사회문제별 맞춤형 인간복지중심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함
- 사례연구(case study) 및 문제중심적 접근 활성화
 - 본 사업단은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함. 기존과 동일한 교과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각 교수들이 모든 강의에서 실제 사례연구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음
- 사회문제해결형 사회복지벤처가(entrepreneur) 육성
 - 본 사업단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벤처가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신규과목 개설을 진행함
- 실증적 근거기반교육(evidence-based education) 커리큘럼 개발
 - 본 사업단은 실천 현장과의 긴밀한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증적 근거기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는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강서자활후견기관,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이 실천현장에서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음
 - 사회복지실습세미나에서는 외부인사 특강 및 멘토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직접적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실 적합성 및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② 신청서 운영 계획 대비 실적

□ 신 사회문제에 선응적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강의
 - 커리큘럼의 개편에는 신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참여 대학원생들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다양한 학문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의를 개설하였음. 본 사업단은 4단계 BK21 사업의 4대 비전에 맞추어 참여 대학원생들이 예측 불허한 신사회문제에 대처하는 공정한 관점과 포용적 정신을 획득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을 이루도록 사업단과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난 1년간 개설해옴. 아래의 표에서 특별강의의 공정, 포용, 혁신 분야 별 개설교과목의 계획과 실제 개설교과목(bold 표시)을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교수진이 참여하는 팀티칭 강의
 - 본 사업단은 지난 BK사업 지원 기간 동안 참여교수진이 모두 참여하는 팀티칭 강의형태로 현대사

회복지세미나(BK 세미나)를 실시해옴. 4단계 BK 사업에서도 모든 사업단의 교수(이중소속으로 참여가 제외된 외국인 교수도 포함)가 매주 번갈아 각 세부전공분야의 이슈와 연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또한 본 사업단이 벤치마킹하는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의 교수진도 2021-1학기에 3명을 초빙하여 교육의 국제화와 역량 증진을 꾀하였음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특별 강의 (박찬봉/ 손원익/ 이영문/ 장동진/ Christina Hiessl 외) + 실습전담교수	[실습] • 사회복지 현장실습(2020-2학기, 2021-1학기) • BK21심화실습(2020-2학기, 2021-1학기)	• 사회복지와 재정정책(2020-2학기) • 군사회복지윤리와 상담 • 정의와 사회복지 • 신사회적 위험 대응의 윤리와 철학(2021-1학기)	• 커뮤니티케어 • 인권과 군사회복지실천(2020-2학기) • 통일과 사회복지 • 난민정책 • 군사회복지의 이해(2021-1학기) • 한국복지국가론(2020-2학기)	• 정신치료와 커뮤니티상담(2021-1학기) • 신 사회위기와 비영리섹터 • 영화와 정신건강담론(2020-2학기) • 구조방정식 모형(2021-1학기) • 제한적 종속변수대상 회귀모형(2020-2학기)	• 사회복지 연구와 실천의 철학적 융합 • 사회복지 산학협력 사례분석 • 재정정책복지사회세미나(2021-1학기) • 사회문제론 - BK Foundation II (2021-1학기)
사업단 전체교수 팀티칭 강의 + UMSSW교수진의 특강	현대사회복지세미나 I, II (BK 세미나) (2020-2학기, 2021-1학기) * UMSSW교수특강 3개 (2021-1학기) 1. Problem Gambling and Credit Counseling (Professor Paul Sacco) 2. Exploring Policy from the Bottom Up: Case Studies from Child Welfare, Child care Policy, and Prostitution Diversion (Professor Corey Shdaimah) 3.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Professor Judy L. Postmus)				

□ 현장 이해 증진과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형 수업의 강화

- 고등교육혁신원의 지원을 받아 개설되는 사회문제해결형 대학원 교과목 개설을 확대하여 사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학습한 이론의 적용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으로, 최종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서비스 제안서, 프로그램 평가 매뉴얼,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 연구보고서 등으로 구성하였음. 실정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0-2학기 5과목, 2021-1학기 6과목을 개설하였음

③ 향후 추진계획

- 사회문제 해결형 실습수업의 강화가 요구됨.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실습처의 접근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음. 사회복지계에서도 비대면 실습을 혼합한 형태의 실습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현장중심의 실습수업이 어려운 상황임. 교과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형태의 실습수업의 현실화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성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임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0년 2학기	16	11	0	27
	2021년 1학기	13	12	1	26
	계	29	23	1	53
배출 (졸업생)	2020년 2학기	8	0		8
	2021년 1학기	9	0		9
	계	17	0		17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신청서 기준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계획 1	다양한 장학기금 재원 확보
계획 2	참여-비참여 대학원생 간의 장학금지원 격차 최소화
계획 3	높은 장학금 수혜율
계획 4	전용공간의 확보
계획 5	논문 인센티브 및 영어논문 지원
계획 6	다양한 학제 편성
계획 7	입시전형 설명회 개최
계획 8	해외학생 유치와 현장과의 교류 확대

- 신청서 기준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은 위의 표와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성취한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성과 1

대학원 자체 장학기금을 통한 우수 인재확보와 비참여 대학원생 지원

- 본 대학원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대학원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원 자체 장학기금 모금을 지속 해서 진행해옴
 -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고민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고 향후에도 안정적 으로 기금을 집행할 예정임
- 우수 인재를 확보와 참여-비참여 대학원생 간의 장학금지원 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본 대학원의 대응자금을 활용하여 다음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음

- (1) (학석사) 연계과정 장학금, (2) 기금장학금, (3) 경원문화재단 장학금, (4) 사회복지대학원 근로 장학금, (5) 사회복지대학원 기금장학금, (6)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7) 성적우수 재학생장학금, (8) 코로나19 특별장학금, (9) 행정조교장학금 등
- 입학전형 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신입생을 매 학기 선발하여 우수신입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한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신설하여 지원하였음

성과 2

전용공간의 확보

- 대학원생의 전용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공간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 공간 및 공유 공간으로 아펜젤러관 303호와 빌링슬리관 105호, 아펜젤러관 지하의 컴퓨터 및 프린터실을 마련하고 담당 조교를 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성과 3

논문 인센티브 및 영어논문 지원

-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술지 논문게재를 적극적으로 지원
- 국내 학술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최대 4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기간 기준 국내 학술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총 34건에 대해 10,945,000원 지원하였음
- 국내외 학술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정기간 기준 SSCI급 · KCI급 게재논문 등 24건에 대해 총 11,930,000원을 지원하였음
-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이 공저인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영문교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영문 교정비를 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국제저명학술지에 원활한 투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정기간 내 총 3건에 대한 933,490원 지원하였음

성과 4

다양한 학제 편성

- 학·석사 연계 시스템 도입
-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부생의 대학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사회복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석사 연계 시스템을 운영함
-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 3, 4학년 학생은 총 12학점까지 대학원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본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부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전체 평량평균(GPA)이 3.3/4.3 이상이어야 하며 각 과목당 B-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필수학점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학부 졸업 후 본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 중 최소 30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고, 대학원이 정한 졸업논문 자격시험과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기에 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2020년 2학기부터 홍이준 학생 1명이 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학문후속세대가 학부생을 지도하는 UT세미나(Undergraduate Tutorial Seminar) 확대

- 학문후속세대인 박사(예정자) 선배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최근의 경향과 지식을 교육하고, Tutor의 입장에서 진로 설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과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예정임
- 실정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0-2학기 6과목, 2021-1학기 7과목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의 혁신적 교과목을 개설해오고 있음. 교과내용으로는 문헌탐색 및 보고서 작성(나에게 맞는 문헌 찾아읽고 보고서 작성하는 법)이나 논문작성(사회복지분야 연구의 기초와 논문작성, 사회복지 자료해석과 주제찾기) 등의 연구방법, 정신건강(정신건강사회복지의 주요이슈 및 실천)이나 가족치료(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상담과 대화연습) 등의 사회복지 실천, 다양한 사회복지영역 등을 다루고 있음

성과 5

입시전형 설명회 개최

- 본 대학원은 우수 대학원생의 유치를 위하여 주요 일간지 등의 언론매체에 대학원 입학전형을 홍보하고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시전형 설명회를 매 학기 개최하였음
- 입시전형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입시요강의 안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대학원의 4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예비 연구자로서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산정기간 내 신입생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2회 진행하였음
 - 1)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온라인 입학설명회 (일시 : 2020.10.14.(수) 19:00 ~)
 - 1)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온라인 입학설명회 (일시 : 2021.04.21.(수) 19:00 ~)
 - ▶ 장소 : 온라인 (ZOOM)
 - ▶ 모집과정 :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 ▶ 입학설명회 주요내용
 - ① 대학원 소개(연구분야, 교육과정, 진로 등)
 - ② 장학제도 소개
 - ③ 입시요강에 대한 설명 및 지원방법 안내
 - ④ 질의 및 응답

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0.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2월 졸업자	석사	8				8	6	75
	박사	0				0	0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9	3			6	3	50
	박사	0				0	0	

- 졸업생들이 다양한 성격의 기관에 취업하고 있어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다양한 위계계층을 포용적 인재라는 사업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 BK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졸업생들은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과 현장중심의 재단 등에 취업하였음. 취업실적은 2021년 2월 졸업자의 75%, 2021년 8월 졸업자의 50%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음. 아래의 표는 2021년 2월 졸업자들의 취업현황을 나타냄

학기	졸업자	유형	취업기관
2021년 2월 졸업	■	취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취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취업	경기복지재단
	■	취업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	취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	취업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2021년 8월 졸업	■	취업	서울광역치매센터
	■	취업	서울아산병원
	■	취업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졸업자의 취업기관에서의 역할을 본 사업단의 인재양성 성과와 연계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음
- 사회문제의 선응적 대응을 위한 포용적 인재 및 혁신적 인재 배출
- 석사 학위 수여자는 졸업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전략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가 연구>, <기부자맞춤기금 장학지원사업 모델 개발 연구>, <사랑의열매 기부자·배분기관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의 연구에 참여하며 나눔문화 활성화 및 나눔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redacted] 졸업생은 굿네이버스 사회개발교육팀 연구원으로 근무 중. 아동권리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세 계시민교육 개발 및 연구를 담당함. 존중과 협력을 통해 공존하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아 동의 생애발달주기에 맞는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기여하고 있 음
- 사회문제해결형 사회복지전문가 배출
 - [redacted] 졸업생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에서 노인복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석사논문으 로 『노인의 사회활동 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를 작성하였음. 석사과 정 동안 노인의 삶의 질, 사회참여, 고령친화도시 구축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노인복지에 관 해 정책과 실천 측면에서 균형 잡힌 관점을 키워 나갔음. 현재 기관에서 경기도 노인복지종합계획수립, 독거노인 지원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정책연구와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
 - [redacted] 졸업생은 현재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음. 장애인의 생 애주기별 접근으로 18-35세를 위한 직업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평소 대학원 재학 중 장애인의 취 업과 관련한 본인의 관심을 발전시켜 세부전공에 맞게 취업한 매우 우수한 사례임. 이외에도 연구수 행 경험을 토대로 복지관내에 필요한 제안을 시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한 지원을 통해 사회내 비장애인과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redacted] 졸업생은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근무 중임. 석사 졸업 논문으로 ‘재난피해자 의 재난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지각된 지역사회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작성하였음.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는 교육부 중점 정책연구소로서 학 생정신건강분야의 정책연구소로서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와 근거 기반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최 근 학생 심리부검연구, 이슈페이퍼 등의 연구를 수행함
- 이론과 실천을 가교하는 혁신인재 배출
 - [redacted] 졸업생은 현재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석사논문으로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가족의 사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작성하였음. 석사과정 동안 질환을 가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입원노인의 가족 대상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함. 이후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실천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곳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였 으며, 현 직장에서도 노년내과 입원 노인의 퇴원계획 및 노인·가족 상담 업무와 연구프로젝트를 담당하 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
 - [redacted] 석사과정 졸업생 고은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으로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제 개발을 비롯하여 노인정책 및 장기요양정책 평가연구에 기여하고 있음. 본 대학원을 졸업한 [redacted] 졸업생은 노인요양시설 돌봄문화 현황조사 프로젝트 참여 및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사회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전공연구분야를 살려 취직 후 연구와 업무에 활용 하고 있는 우수 사례임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 본 사업단은 아래의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해왔음. 구체적인 연구역량 증진내용은 1) 자체예산(대학 본부 대응자금 및 사회복지대학원 자체기금) 투입을 통한 참여·비참여 학생 간 균형있는 지원, 2) 자체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학술활동 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 3) 자체예산(대학 본부 대응자금 및 사회복지대학원 자체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학술활동 의지 고양임. 본 연구단은 소속대학원생 간의 공정한 기회제공과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자세를 위해 비참여대학원생에게 동일한 지원을 보장하였음. 다만, 본 평가서에서는 참여대학원생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정리하였음을 밝힘

신청서 기준 연구 수월성 증진 계획

1	자체예산(대학 본부 대응자금 및 사회복지대학원 자체기금) 투입을 통한 참여·비참여 학생 간 균형있는 지원
2	자체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학술활동 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
3	자체예산(대학 본부 대응자금 및 사회복지대학원 자체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학술활동 의지 고양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은 최근 1년 동안 국내논문 29편, 국제저명학술논문 4편을 게재하였음.

연도	국내(KCI등재/후보)	국제(SSCI)
2020년2학기 (‘2020.9.1~’2021.2.28)	14	2
2021년1학기 (‘2021.3.1~’2021.8.31)	15	2
총계	29	4

- 본 사업단이 추구해온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졸업생들은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주제로 삼아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업적을 달성하였음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사회문제 해결 추구

- 서경주 박사과정은 2020년 12월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이자립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내 통합과 포용을 가치로 두고 있음. 또한 정신적 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 모두 자기 낙인감과 취업에 도움을 줄 사람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됨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개인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사람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 사회내 통섭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 경제활동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기획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활발한 제안에 기여하고 있음

- 민진아 박사과정은 2021년 2월에 “여성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직위별 비교 연구: 개인역량, 조직관리, 사회적 지원 변수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본 논문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정책적 지원이 증가함에도 여전히 여성관리자가 부족한 이슈에 중점을 둔 논문임. 여성근로자의 경우 평생직장을 경력성공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함에 따라 직위에 따른 주관적 경력성공의 영향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음. 직위에 따른 차이와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제7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산분석 및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위에 따른 다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에 부응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개인·조직적·사회적 차원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혁신적 연구임. 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2021년 기준 IF 1.97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최선아 박사과정은 2021년 3월에 ‘한국가족복지학’ 학술지에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립에 관한 질적 연구: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가족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임. 본 연구는 빈곤에 처한 미혼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립의 의미와 현재 겪고 있는 자립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질적연구를 함.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취업 경쟁에서 실패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됨. 이 연구를 통해 빈곤 미혼모 여성의 노동이 자립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자립을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을 논의하여 공정하고 포용적 사회로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 김담이 석박통합과정생은 2021년 6월에 “여성 노인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를 수행해 <노인복지연구>학술지에 게재하였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 돌봄, 노인 빈곤 해소, 노인 인력 활용, 노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임.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여성 노인들의 참여과정을 분석하였음. 사례 간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참여 경험의 주요한 주제들은 참여 동기로 이어지는 노년기 다차원적 욕구, 활동 참여와 유지의 전제조건인 건강, 활동 참여의 상반된 효과, 여성 노인의 일, COVID-19이후의 활동 변화, 노년기 자아실현과 활력의 6가지로 도출되었음. 특히, 본 연구는 COVID-19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들이 활동 공백, 예고 없이 닳친 활동 시간감소와 급여형태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의 전환 등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COVID-19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운용에 대한 혁신적 개입방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또한, 본 연구는 기존 활동유형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유형의 혁신적 발굴이 필요하며, 새로운 노인 세대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이 향후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모든 노인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의의가 있음. 이밖에, 본 연구는 과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겪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경험, 전통적 성 역할 가치중심의 태도가 여성 노인들이 공익활동 중심으로 사업유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노인의 성차를 고려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혁신적 운영이 공정한 복지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창의적인 관점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
- 한상윤 박사과정은 2021년 5월에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본 논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현재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은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와는 다른 매우 장기적인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에서 이들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담은 혁신적인 연구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장기화는 21세기 또 한 번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에서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취약한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의 가중, 그리고 혼란스러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에 부응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이진혁 박사과정은 2020년 12월에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 한국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종단분석”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자립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내 통합과 포용을 가치로 두고 있음. 또한 정신적 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 모두 자기 낙인감과 취업에 도움을 줄 사람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됨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개인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 사회내 통섭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 경제활동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기획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활발한 제안에 기여하고 있음
- 오유라 박사과정은 2021년 6월에 “고령자 공적연금 수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단순히 소득보전으로써의 기능이 아닌 공적연금이 가지는 다차원적인 노후준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의 포용과 협력적인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함. 본 연구는 고령자 공적연금 수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공적연금이 가지는 다차원적 노후준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공적연금 수급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사회참여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사회참여 매개변인의 유의미성이 검증되었음.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공적연금이 가지는 다차원적인 노후준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이에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존 제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협력에 대해 기여하고자 함
- 국제적 수준의 논문 게재와 세계의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제시
- 장대연 박사과정(수료) 학생은 2020년 9월에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에 “Exposure to Family Violence, Peer Attachment, and Adolescent-to-parent Violence”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는 IF 6.144로 대인간 폭력 분야에서 매우 권위있는 국제저널임. 본 논문은 2010년 진행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709명의 청소년 표본을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정폭력과 부모폭력 간의 연관성을 밝힘. 연구결과, 아동학대 피해가 부모폭력 가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이 이 둘 사이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됨. 본 결과로부터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부모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힘.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는 부모폭력 가해자의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개입시 긍정적인 또래 관계 증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본 논문이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가정폭력 대물림을 예방함으로써 포용적 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이진혁 박사과정은 2021년 7월에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Evaluation of Multiple Imputation with Large Proportions of Missing Data: How Much Is Too Much?”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본 논문이 게재된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는 SSCI급 학술지로 2020년 기준 IF는 1.429점으로 공중보건학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본 논문은 결측값 처리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이 높은 비중의 결측률을 가진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인지 검증한 논문임. 몇몇 조건에서 다중대체법의 효과성이 확인되면서 사회과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추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다중대체법이 높은 결측률(80%)에서도 그 정확도와 효율성이 확보되는지 검증하면서 다양한 분석 조건에서도 그 효과성이 강건하게 유지되는지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더욱이 결측값이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통해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실증 연구 분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그리고 제2저자인 통계학자와 학제간 협력을 통해 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음

□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매학기(하계/동계) 참여대학원생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대학원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양질의 특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하여 연구역량을 증진할 계획임
- 참여대학원생 공동연구와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참여대학원생 대상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대상들이 혜택받도록 격려
 - 지원성과로 연구결과물과 취업성공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석학 논문지도 및 공동연구 강화
 - 참여교수의 공동연구자 해외석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수준의 논문작성 지원
- 혁신적 융합연구 세미나 개최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융복합 주제의 연구 세미나 개최 예정 (2022년 상반기 세미나 개최를 목표로 준비: 의학, 공학, 체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을 포용)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 본 사업단이 추구해온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졸업생들은 공정한 포용사회 추구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주제로 삼아 국내외 학회에서 학문 간의 소통과 지식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결과를 달성하였음
-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국내학술대회(구두 1건)와 국제학술 대회(포스터: 5건, 구두 4건)에서 발표하였음

연도	국내/국제	유형		합계
		포스터	구두	
2020년 2학기 (‘2020.9.1~’2021.2.28)	국내			
	국제	5	3	8
2020년 2학기 (‘2020.9.1~’2021.2.28)	국내		1	1
	국제		1	1
합계		5	5	10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사회문제 해결 추구

- 김담이 학생은 2021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학회인 SSWR(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에서 “How Do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s of Korean Children in out-of-Home Care Affect Their Academic Achievement?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실시함. 본 연구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외보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함. 이를 위해 가정외보호아동패널 2차 조사(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외보호아동 460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음. 연구결과, 가정외보호아동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친부모 애착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외보호아동의 친부모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의무화를 제안하였으며, 가정위탁제도의 예산확대와 인력증대, 가정위탁지원센터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본 발표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아동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아동에 주목한 연구로서 포용적 복지국가 조성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지님
- 김혜진 박사과정은 2020년 10월 국제적으로 보건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인 APHA(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20에 참여하여 “Influence of friends’,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on suicide ideation“을 주제로 발표함.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으며 매년 가족,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동료, 지인, 이웃 등 자살에 노출되는 자살생존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자살에 대한 노출 경험은 심리적 고통과 함께 자살생각을 높이는 요인이나 유가족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살 노출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며 실질적 개입 및 지원도 부족하였음. 특히 자살 생존자가 자살 고 위험군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보호요인 및 심리사회적 강화가 요구됨. 이에 국내 최초 전국 규모 종단 데이터인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살을 경험한 자살생존자의 정신건강 추적연구“의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친구, 동료 및 지인의 자살에 대한 노출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

호요인으로서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함. 성인 1,79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구, 동료와 지인 관계에서 자살을 경험한 사람은 17.2%였으며 자살에 대한 노출이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기능은 자살노출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충효과를 가져 보호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는 자살유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 다양한 유형의 자살노출과 자살생각 간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자살예방정책과 실천 개입에 대해 제언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라 할 수 있음

- 이유진 박사과정 학생은 2021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학회인 SSWR(Society for Social Work Research) Conference 2021에서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음. 본 연구는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과 부부폭력의 유병률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다른 환경(예: 북한, 중국, 남한)에서 성폭력 피해와 부부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함. 이 연구를 위해 140명의 여성북한이탈주민을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부부폭력 피해와 성폭력 피해 그리고 중복피해의 관계를 밝힘. 연구 결과,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한 가지 유형의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약 14%는 성폭력 또는 부부폭력 피해자였음.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북한이탈주민은 부부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인신매매 및 성폭력 피해 여성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입국 후 부부폭력 피해 위험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가부장적 신념과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보다는 낙인 찍고 더 수치심을 줄 위험이 있음을 시사함.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북한이탈주민 중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스크리닝하고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마련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에 더 포용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높은 수준의 해외학회 참여와 국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제시

- 이주영 석사는 2020년 11월에 개최된 미국 노년학 분야 최대 학회인 GSA(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2020 Annual Scientific Meeting에서 “Influence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f types of older adults daily time use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를 주제로 발표함. 한국 노인들은 노년기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사회적 역할의 축소, 신체의 노화로 인한 건강상태의 저하 등을 경험하며, 다수의 노인이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 이에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영향요인과 차이를 확인하고, 각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시간사용 유형 변화를 추구하여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송지현 박사과정 학생은 2020년 11월 비영리 분야의 최대 학회인 미국비영리학회(ARNOVA: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의 49th ANNUAL ARNOVA CONFERENCE 에서 “Roles of Advocacy Organizations in Collective Action in Social Media Age : Evidence from South Korea” 를 주제로 구두 발표를 실시함. 디지털 시대에 집단 행동의 성격 변화를 강조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전통적으로 시민의 집단 행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던 시민조직 및 비영리조직의 역할 변화를 고려한 연구는 드물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서 비영리조직의 역할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 비영리조직의 소셜미디어 집단행동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봄. 또한 송지현 학생은 ARNOVA 학회가 아시아 권역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ARNOVA-ASIA

CONFERENCE 의 제 5th Annual ARNOVA-Asia Conference 에서 “Percep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mplications to the Nonprofit Sector” 연구를 구두 발표 진행함. 본 연구는 기업이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기업의 인식이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기업 조직관행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황성결 박사과정생은 2021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학회인 SSWR(Society for Social Work Research) Conference 2021에서 “The Effect of Sexual Victimization prior to Migrat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함. 본 연구는 탈북여성이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율이 높으며, 그 후유증 또한 복잡하고 심각하여 대책이 필요하기에 성폭력 피해와 그 후유증에 관계를 검증하고자 함.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 방안 연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55샘플을 최종 분석함. 연구 결과, 탈북여성의 31.2%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45.2%가 자살생각을 지난 1년간 가졌고, 84.9%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중 1가지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탈북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성폭력 피해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의 다양한 외상사건 중 남한 입국 전 성폭력 피해 경험이 갖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성폭력 피해와 같은 심각한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스크리닝과 성폭력 피해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교육과 치료 제공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통해 탈북여성의 정착을 도와 포용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계획

- 지난 1년동안 본 사업단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술대회의 축소와 취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새로운 비대면 형태의 학술대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중점적으로 참여하였음
- 장기화되어 가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각광받는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정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또한 학술대회 발표 전 희망자들에게 지도/피드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리허설 등을 지원하고자 함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 지난 1년 간 본 사업단에 총 3명의 신진연구인력이 본 사업단에서 근무하거나 하고 있음. 본 사업단 및 학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희정 박사와 채주석 박사가 박사 후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이현 박사가 신진연구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희정 박사는 학사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7년간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음.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활동능력을 입증하였음. 연세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에는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진정성으로 학업에 성실히 임해왔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SSCI와 KCI급 저널에 학술논문을 게재하였음.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희정 박사의 강의는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현장에 적용하는 예시를 적절하게 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채주석 박사는 노인사회복지 현장과 이론에 밝은 전문가로서 특히, BK 21plus 3단계의 지원으로 양성된 인력으로 본 사업단 활동의 훌륭한 결과 중의 하나임. 2021년 2월 학위취득 후 본 사업단 4단계 2차년도 신진연구인력으로 참여하며 한국노인복지학회 발표, 멘토링과 연구방법론 특강을 통한 교육,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 그 역량과 업적을 인정받아 2021년 8월 현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실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연구를 기획 및 진행중임
- 이현 박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가족 및 청소년복지분야 전문 연구자임. 학위과정 동안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다문화 가정의 적응문제, 가족 간 의사소통 개선 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KCI급 저널에 논문을 다수 게재함. 이현 박사는 학위과정 중 BK 사업에 장기간 지원(2013년 - 2018년)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였음. 특히, 국내 관심이 미흡했던 군사회복지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군장병 병영생활 부적응(자살, 폭력, 정신장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군사회복지 프로그램 국제 협력사업(단기년도)’, ‘한국 군 장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영국, 미국,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총 3차년도)’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다수의 해외 컨퍼런스에서 구두발표 하였음. 박사 학위논문으로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개입연구를 진행하고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학위과정에서의 배움을 연계하고 정리하였음. BK 참여 불가한 학기초과 과정에는 BK 행정지원인력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진행과 교육단의 교육과정 개편 및 연구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역할 하였음.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3년 동안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성결대학교에서 청소년 및 학교사회복지 강의를 하고 있음. 연구역량에 기반한 학문적인 이론과 실천현장에서의 경험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강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의 실적 외에도 참여대학원생 대상의 강의와 특강, 포럼 진행 등을 통한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외부 연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채로운 역할을 담당하였음
- 연구실적
 - 이현 박사는 지난 1년동안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국내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6건을 게재하였음. 대표적인 게재논문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3월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에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분류 예측요인 탐색연구- 잠재프로파일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해당논문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민자들의 문화적응문제를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 분류를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재확인하고 해당 유형 분류를 예측하는 실증적인 요인들을 밝혀낸 점에서 의의를 지님. 기존의 변수 중심적 접근의 분석법의 한계를 넘어 대상자 중심의 응답패턴에 따라 집단분류하는데 용이한 잠재프로파일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동화와 통합이 융합된 형태가 발견되었음. 이것은 주류사회인 한국사회 중심의 다문화 정책의 결과로 보여지며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에 필요한 주요한 아젠다로 여겨짐. 또한 최신 각광받고 있는 기계학습 방법인 랜덤포레스트를 사회복지학문영역에 시도함으로써 훌륭한 안정성과 예측력을 지닌 혁신적 연구를 진행하였음. 본 논문이 게재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학술지명)는 2019년 KCI 기준 IF 0.88, Q2 등급에 해당하는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2021년 2월 ‘인문사회 21’에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사례관리 경험 및 인식 탐색”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해당논문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사례관리 경험 및 인식을 탐구하고 혁신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한 논문임. 본 논문은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이해와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연구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 연구현황에 주목하였음.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입방안을 계획하고 실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공동생활가정의 사례관리 종사자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공동생활가정 사례관리 체계 수립의 필수조건임.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에 일조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려움 파악과 역량강화의 역할은 불평등과 사회갈등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사례관리 경험 및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의 욕구와 특수성에 기반한 함의를 제시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음
- 2021년 3월 ‘한국청소년복지 학회’에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척도 타당화”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해당논문은 한국사회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측정문제를 탐구하고 혁신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한 논문임.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이 고전검사이론(CTT: Classical Test Theory)의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면서 나타난 제한점을 기존에 교육학과 심리학 학문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던 문항반응이론(IRT: Item Response Theory)을 적용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그 결과, 청소년의 응답능력에 비해 척도가 높은 난이도를 지니는 것과 역문항이 응답오차를 증가시키는 것,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문항 등을 확인하였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척도의 문항 수정 및 보완과 추후연구를 위해 제언함으로써 미래 사회구성원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용한 연구로 평가됨. 본 논문이 게재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학술지명)는 2019년 KCI 기준 IF 2.32, Q1 등급에 해당하는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채주석 박사는 2021년도 한국노인복지학회 신진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21년 5월 14일 국내에서 개최된 2021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진연구자 졸업논문 발표 세션에서 학위논문인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한 세대 간 연대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발표하였음. 학위논문 중 질적연구단계 부분은 2021년 9월, 한국노년학회지에 ‘한국인의 세대 간 연대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으로 게재 확정됨

○ 교육실적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플러스 사업단 2020 웨비나(Webinar)
 - 이현 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지사회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2020년 7월 22일(수) ~ 7월 24일(금)동안 본 BK사업단이 주최한 웨비나(Webinar)에 발표하였음. “코로나 재난 속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다룬 발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교육 및 양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취약한 아동의 발달 현황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모델을 제시하였음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2021년 하계 연구력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조사연구 특강 시리즈 『후속연구세대와의 만남: 3단계 BK 선배 연구자와 4단계 BK 후배 연구자의 교류』
 - 이현 연구원은 본 BK사업단이 2021년 8월 18일(수) ~ 8월 20일(금)간 주최한 2021년 하계 연구력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조사연구 특강 시리즈에서 후속연구세대로서 “R를 활용한 잠재계층모형과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음. 사전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 욕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욕구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방법론을 참여대학원생의 수준에 맞추어 특강을 구성 하였음. 특강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은 물론 선배 연구자로서 연구 및 진로설계에 많은 도움이 됨
 - 채주석 연구원은 2021년 8월 20일, 2021-1학기 하계 연구방법론 특강에서는 학위논문에 적용한 혼합연구방법과 이를 활용한 측정도구 개발과정을 소개하였음. 양적, 질적연구단계에 쓰인 자료 수집방법과 분석기법에 대해 지도하며 학위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에게 선배 연구자로서 다양한 조언을 하였음
- 멘토링
 - 채주석 연구원은 본 사업단 노인복지전공 박사과정 한상윤 학생과 2021년 1학기 2차레에 걸쳐 1:1 멘토링을 실시하였음. 학위논문 주제 선정과 작성방법, 졸업 후 진로 및 방향설정 등 본 사업단의 BK 4단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후속연구세대 양성과정에 기여함

○ 연구사업

- 어깨동무사업(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일환)
 - 본 BK사업단이 속해있는 연세대학교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연세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지역대학 우수연구자(팀)와의 공동연구사업인 『어깨동무사업』을 공고하였음.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기획된 본 BK사업단의 사업은 ‘민간 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문후속세대 3인의 교수(김준표, 경상대학교; 정규형, 세명대학교; 이종화, 강남대학교)와 함께 기획하였고 최종 연구지원과제로 선정되었음. 특히 BK사업의 지원으로 성장한 신진연구인력과 학문후속세대 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협력의 예시로 들 수 있음. 또한 지리적 제한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는 포용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음
-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2기 사업
 - 채주석 박사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2기 조성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사업에 공동연구자로 참여,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지자체의 고령친화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코로나 이후 고령친화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음

- 위드 코로나시대의 자원봉사패러다임 연구조사

- 이현 박사는 안양의 자원봉사자(단체)와 수요처의 욕구를 조사·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개선사항 도출 및 위드 코로나시대의 안양형 자원봉사 모델을 제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드 코로나시대의 자원봉사패러다임 연구조사’의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고 있음. 현 사회복지 생태계를 반영한 시기적절한 연구로서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 유형을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하여 행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재 선정된 어깨동무사업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연구권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 해당 사업에서 얻어진 연구자료를 활용한 논문게재와 다년도 과제에 연구 아이디어의 적용을 독려할 것임
- 본 연구단에서 기획하는 교육·연구역량 증진 세미나와 특강 등의 참여기회를 통해 희망하는 참여 대학원생과의 연구협업과 진로·학업에서의 멘토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임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참여학생들의 전공 관련 이론과 실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영역에 특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전달하였음. 특히 새롭게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추진을 위해 개편한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적합한 강의를 기획하고 실제 제공함
- 김진수 교수는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심도있게 전달하였음. 사회보장에 관한 개념, 이론 및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사회보험 제도를 분석하는 전체적인 틀을 제시함. 또한 사회보험 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보험 제도의 핵심을 전달하고 학생과 상호 간 참여 수업을 장려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분석하기 전에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이론 및 사회보장체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보장의 개념 및 방법,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사회보험 관련 이론, 보험이론,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사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 둘째,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이론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제도 분석 틀에 따라 사회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공적연금체계, 건강보험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체계, 고용보험 등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 분석을 통해 제도를 이해하고 변화추이 등을 살펴봄. 셋째, 사회보험 제도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업과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로 이어 가고자함. 수업을 통해 한 학기 수업 이후 전체적인 제도 분석에 대한 시각을 갖도록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
- 최재성 교수는 2020년 2학기 사회복지대학원 전공심화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연구설계’ 강의를 통해 사회복지행정관련 다양한 이론 및 최근 연구사례를 학습하여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연구설계 및 응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특히, 연구질문 설정 및 연구설계의 논리적 적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 실제 연구사례로서,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장기요양시설실태조사 프로젝트’와 ‘발달장애지원사업 통합 성과분석 프로젝트’가 포함됨. 2021년 1학기에는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스연구 경향분석’ 강의에서 사회복지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스 기획을 탐구함. 본 연구단이 추구하는 실제 사례중심의 사회문제해결형 수업으로 연구과제와의 연계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을 보여줌
- 남석인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존엄한 삶에 주목해 왔음. 빈곤, 질병과 관련된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을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학문후속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음. 구체적 실천 역량 강화에 주목한 ‘노인융복합연구세미나’, ‘고령친화도시와 세대공존’, ‘연령차별과 세대갈등’ 등의 수업을 통해 노인의 삶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노인이 처한 불공정을 해결하고 사회적 공존과 포용을 위한 방법에 대해 교육해 왔음. 남석인 교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구성원이자 연구자로서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시각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남석인 교수는 이 외에도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방법에 기반하여 윤리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자로 자신의 연구주제와 연구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김재엽 교수는 2020년 2학기에 학부와 대학원에서 ‘가족복지론’ 강의를 통해 와해되어 가는 현대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포용적 가족복지 관점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음. 더불어 본 연구단이 주목하고 있는 4대 비전을 중심으로 ‘포용적 가족복지와 가족치료’와 ‘신 가족위기와 사회복지실천세미나’ 강의를 기획하였음. 가족, 청소년, 군인 가족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대상들이 겪는 위험을 파악하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포용적 사회 구조를 세워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

- 강철희 교수는 2021년 1학기 대학원 수업 ‘비영리조직과 자원개발: 모금’에서 비영리조직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인이며 조직활동을 가능케하는 자원 개발을 심층적으로 다룸.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비영리조직의 생존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지, 각 주체가 제공하는 자원의 속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비영리조직은 그러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다룬 혁신적인 과목으로 평가됨.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원, 기업이 제공하는 자원, 지원재단이나 공익자선 단체가 제공하는 자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제공하는 자원 등의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였고, 특히 일회성 기부, 정기기부, 그리고 유산기부 등의 계획기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일반 시민이 제공하는 모금의 의미와 개발방법을 연구하였음. 이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대학원생들의 역량을 더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성과를 이끌었음
- 남보영 교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위기계층을 포용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의 강의를 진행하였음. 특히, ‘포용과 사회복지’는 한국사회가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다루며, 위기계층을 포괄하고 공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남보영 교수는 강의를 통해 빈곤, 노동문제 등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주제별로 탐색해보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탐구하는 주제에 대한 문제중심적 접근을 활성화시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연구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 송인한 교수는 2020년 2학기 ‘건강·정신건강 불평등’ 과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건강·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인종적, 민족적 불평등을 강의하였음.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건강과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사회적 차별이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결과들을 제공하였음.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 건강불평등이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음. 본 수업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논의하며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 또한 건강불평등의 취약한 여러 계층들과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이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 다루었음. 그리고 차별, 부패,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인류적인 협력을 통한 인권적 해결책을 논의하였음. 따라서 본 수업은 건강이라는 사회적 시각을 통해 인권, 사회 정의, 젠더 불평등을 바라보았으며, 기존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과 인권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수업이라 볼 수 있음
- 최수찬 교수는 ‘산업복지론’ 수업을 통해 작업장 안팎에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기업주나 노동조합 또는 정부의 후원 하에 행해지는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가리키는 산업복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함. 학생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제 문제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학제 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함. 특히 근로청소년, 고연령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등 근로 취약계층을 포용하여 산업복지와 연계시켜 이들에 대한 임상적, 행정적, 조직적, 그리고 정책적 개입방법을 이해하도록 증진시키는 역할을 향상시키는 교육 활동을 제공하였음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국제공동 교육: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와의 교류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UMSSW) 교수진의 특강
 - 2021년 1학기동안 현대사회복지세미나 II 수업을 통해 UMSSW의 학장을 포함한 총 3명의 교수진이 특강을 진행하였음

○ Professor Paul Sacco : Problem Gambling and Credit Counseling

- 2021년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특강이 진행됨. Paul Sacco 교수는 문제도박(problem gambling)의 실태와 심각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음. Paul Sacco 교수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도박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도박중독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특강 이후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연구자 간 협력 및 소통의 가치를 이끌어냈음. Paul Sacco 교수는 도박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병적으로 중독될 위험이 높다는 특징으로 인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Paul Sacco 교수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도박중독자들을 위해 혁신적인 IT 기술(text-message)을 활용한 상담 및 개입방안을 제안하였음. 학생들은 Paul Sacco 교수의 특강을 통해 도박중독이란 사회문제가 학문과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접하고 한국사회에서 취약한 이들을 포용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음

○ Professor Corey Shdaimah : Exploring Policy from the Bottom Up: Case Studies from Child Welfare, Child care Policy, and Prostitution Diversion

- 2021년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특강이 진행됨. Corey Shdaimah 교수는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bottom-up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됨.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아동의 인신매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bottom-up approach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미국의 사례를 접하며 양국 교수와 학생들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동은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bottom-up 방식의 복지정책 수립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음. 사회복지정책이 하향식으로 수립되어 전달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혁신적 정책과정을 배울 수 있었음

○ Professor Judy L. Postmus :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특강이 진행됨. Judy Postmus 교수는 the Univ.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학장으로 재직 중임. 이번 특강을 통해 한국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사회복지 연구방법을 소개함. CBPR은 지역주민이 연구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연구과정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한 연구방법임. 편안한 분위기에서 Judy L. Postmus의 강연이 이루어졌음.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비교적 높았음. 특히 동 대학 같은 소속의 안학순 교수의 통역이 더해져 학생들이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수-학생 간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했음. 연구자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연구 참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연구 참여를 독려하는 CBPR을 접하면서 포용적 학문 실천의 역량을 함양하였음

• 추후계획

-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과의 매칭 연구 사업은 매칭 교수 간 연구 주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1년 2학기 내 UMSSW 연구진, 본 대학원 연구진과 본

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를 3회 진행 예정임. 더불어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이 교류 진행 중인 연구 발표를 위하여 2022년도 상반기 국제 컨퍼런스 진행을 논의 중임. 이를 통해 연구진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복지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본 대학원 소속 외국인 전임교수의 교육활동 및 역할

-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를 위해 본 사업단의 세부 전공분야를 보완하고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의 4대 교육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해외 석학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실현해나가고 있음
- 현재 교정복지 분야의 전문가인 Michael George Vaughn 교수가 현재 재직 중임. Michael George Vaughn 교수는 글로벌 교정복지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이자 탁월한 연구자로서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임. H-Index 59, i10-index 261, Citations 12024회 등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본 사업단의 글로벌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교정복지는 국내에서는 발전이 미흡한 분야이나 향후 한국사회가 포용과 공정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분야임. 사회의 전 구성원을 ‘포용’ 하고 ‘과정의 공정’을 지향하는 인간 존엄의 가치는 죄의 유무에 따라서도 판단될 수 없기 때문임.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교정하고 나아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사회복지적 가치 추구하고 일맥상통함
 - Michael George Vaughn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 대륙별 범죄가 발생하는 패턴, 범죄의 원인, 국가별 대응체계를 파악함. 미시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교화’ 뿐만 아니라 최초 공격행동을 시작으로 개인이 생애사에서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함. 개인 범죄의 원인을 의료적 관점에서도 찾고자 하였고 과학적 치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였음. 한국 학생들과 함께 주요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열띤 토론의 과정을 거쳐 교정프로그램과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데 주력함
-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추진 커리큘럼 개설에 동참
 - 본 사업단이 4단계 진입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세부전공 별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 추진 커리큘럼 개설에도 동참하여 지난 1년 동안 계획서에서의 개편안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개설해왔음. 아래는 커리큘럼 개편안에 실제 개설된 과목을 표시한 것으로 계획 대비 진행도를 파악가능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Michael G. Vaughn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 Social Problems Correctional Social Services(2021-1학기)	- Research seminar on correctional social services - Research seminar on crime & criminal justice	Research seminar in drug abuse & addiction(2021-1학기) - Interventions for prisoners' children & family - Inclusive welfare society for citizens with criminal record	- Innovative interventions on recidivism - Violence and mental health disorders: causes, treatment, and policies	Global Perspective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Ⅲ

연구역량 영역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단위: 천원)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763,374	719,953	2020.9.1.-2021.8.31. 입금액*지분율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3,172	17,467	2020.9.1.-2021.8.31. 입금액*지분율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97,394	81,936	
참여교수 수	9	9	

1.2 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참여교수의 학술논문】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최근 1년간(2020.9.1.-2021.8.31.) 국내논문 40편, 국제저명학술논문 10편을 발표하였음. 이는 최근 1년 내 교수 1인당 평균 4.4편의 국내논문과 1.1편의 국제저명학술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각 교수의 연구업적물 중 우수한 대표 국내논문, 국제저명학술논문 순으로 제시하였음

연도	국내(KCI등재/후보)	국제(SSCI)
2020년2학기 (‘2020.9.1~’2021.2.28)	17	5
2021년1학기 (‘2021.3.1~’2021.8.31)	23	5
총계	40	10

○ 강철희 교수

- 국내 학술지

강철희, 이승희, 편창훈. (2021). 온라인 모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3(3), 159-182.

- 본 연구는 최근 그 성장세가 큰 온라인 모금 캠페인의 성과에 대한 것으로, 특히 시민의 기부 참여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특히, “벌들은 만개한 꽃들에 더 많이 모인다”라는 현상의 관찰과 관련성 매우 높은 명제인 목표가속 효과(goal-gradient effect)를 중심에 두고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음. 또한, 모금 명분과 모금 캠페인 정서의 영향력도 함께 검증하였음. 검증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에 공개되어 있는 모금 캠페인의 일별 자료를 웹 크롤링을 통해 패널 자료로 구축했음. 분석결과를 첫째, 시민들의 추가적 기부 참여 규모를 통해 측정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의 성과에 있어 목표가속 효과가 일정 지점까지는 정적 관계로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음. 즉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서 목표달성의 52.45% 지점까지는 그 효과가 유효했고, 그 지점 이후부터는 부적 관계를 갖는 역 U자 형태(reverse U-shaped)의 다항적 관계(polynomial relationship)였음. 둘째,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한 모금 캠페인 설명의 정서 역시 온라인 모금 캠페인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음. 즉 캠페인의 설명 정서가 상황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일수록 성과는 더 제고되었음. 본 연구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온라인 기부행동에 대한 새로운 지식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모금을 실행하는 비영리조직들에게 성과 제고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큰 의미를 가짐

- 국제 저명학술지

Kang, C. H. Baek, Y. M., & Kim, E. H. J. (2021). Half a Century of NVSQ: Thematic Stability Across Years and Editor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22. (OnlineFirst) doi.org/10.1177/08997640211017676

- 본 연구는 비영리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NVSQ(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rly)에 지난 50년간 출판된 논문들(1972-2019)에 대한 분석 논문임. 논문의 주제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논문의 시기 구분에 맞춰서 분석하였음. 분석의 방법으로는 automated content analytic method의 방법, 더 구체적으로는 Structural Topic Modeling(STM)의 방법을 사용했음.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본 연구는 NVSQ에 출판된 논문들(1,516 articles)은 37개의 key thematic topic으로 주제가 파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37개의 주제에 기반해서 NVSQ의 역사적 발전의 구분을 3개의 시기로 나누고 각 주제에 대한 시기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주제에 대한 변화에 있어 편집인들의 영향력(disciplinary fields)이 어떠한지를 분석했음. 분석 결과, 37개의 주제들 중 29개의 주제는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8개의 주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발생되어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서 쇠퇴(decline) 혹은 새로운 증가가 시간에 따라 발생되는지를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었음. 이 논문은 새로운 분석 방법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의 방법을 적용해서 저널의 publication의 역사를 꿰뚫어본 매우 혁신적인 연구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김재엽 교수

- 국내 학술지

김재엽, 남보영, 임지혜. (2021). 직업군인의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 : 부부만족도의 매개효과 -군 장기근속간부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2(1), 97-126.

- 본 연구는 군 장기근속 간부의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생활에 전이되어 개인의 문제행동인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봄. 591명의 장기근속 간부를 연구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연구결과, 군 장기근속간부의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37.1%가 위험음주를 하고 있었음. 군 장기근속간부의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만족도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님이 검증됨. 이 연구를 통해 군 장기근속간부의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위험음주를 높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군 인사제도의 변화와 가정생활에서 부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치료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함. 본 연구는 TV조선 뉴스에 21년 8월 기사화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군인들의 스트레스와 위험음주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족의 중요성을 밝힘으로 포용적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평가됨

- 국제 저명학술지

Nam, B., Kim, J. Y., & Bright, C. L. (2020). Exposure to family violence, peer attachment, and adolescent-to-parent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2. (OnlineFirst)
doi.org/10.1177/0886260520960109

- 2020년 9월에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에 “Exposure to Family Violence, Peer Attachment, and Adolescent-to-parent Violence” 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는 IF 6.144로 대인간 폭력 분야에서 매우 권위있는 국제저널임. 본 논문은 2010년 진행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709명의 청소년 표본을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정폭력과 부모폭력 간의 연관성을 밝힘. 연구결과, 아동학대 피해가 부모폭력 가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이 이 둘 사이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됨. 본 결과로부터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부모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힘.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는 부모폭력 가해자의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개입시 긍정적인 또래 관계 증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본 논문이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가정폭력 대물림을 예방함으로 포용적 사회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김진수 교수

- 국내 학술지

김진수, 배화숙, 정원석, 차정음, 황성하. (2021). 사회보험의 미래 존립 연구: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접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9, 61-88.

-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험이 앞으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 앞으로의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써 사회적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사회경제학적 변화가 사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이 성숙하고 안정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변화를 분석하고 사회보험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예상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보험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검증함.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보험체제는 현재 체제로는 도태되어 소멸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진화를 통하여 존립할 것인가 기로에서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보험의 체제 존립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새로운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여함

○ 남보영 교수

- 국내 학술지

남보영, 김담이, 이은형, 김지민. (202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52(2), 127-166.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탐색하고, 이들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모형에는 15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포함되었음. 본 연구는 남한사회 정착 이전 요인과 남한사회 정착 이후 요인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남한사회 정착 이후 요인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부, 자기은폐성이 전체적인 사회적 배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북한학력, 남한정규교육 유무, 자기은폐성이 사회적 배제의 하위 차원인 사회적 교류의 배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 유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부가 생산활동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외상경험이 소비활동의 배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적 방안이 확대되어야 함을 제언하였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은폐성 완화를 위해 거주지 내 주민들과 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자기개방성 향상을 돕는 개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자원 확대, 외상 노출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연속적인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을 강조하였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자 여성인 취약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를 높이는 위험요인과 낮추는 보호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함

- 국제 저명 학술지

Nam, B., Kim, J. Y., Lee, Y., & Fedina, L. (2021).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5(OnlineFirst). doi.org/10.1177/08862605211005146

-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성폭력피해와 파트너폭력의 연관성과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연구 부족의 필요성에 근거해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발생과 북한, 제3국, 남한 사회에서 경험한 폭력 피해의 연관성에 주목하였음.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140명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지난 1년간 파트너폭력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중 신체적, 성적 파트너 폭력피해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을 스크리닝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본 연구는 폭력피해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파트너 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 혁신적 연구임. 또한, 남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트너 폭력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개입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피해를 낮추는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하였음

○ 남석인 교수

- 국내 학술지

한상윤, 김향희, 유희천, 남석인. (2020). 노인의 삼킴장애와 자기방임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40(5), 1003-1020.

- 본 연구는 노인학대, 그 중에서도 노인의 자기방임에 주목하여 노인의 삼킴장애와 우울, 그리고 자기방임 간의 경로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방임의 효과적 예방 방안 및 노년기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의미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노인성 삼킴장애는 노년기에 질환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며, 많은 노인들이 삼킴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혁신적인 융합연구로 진행하였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함께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

연합. 또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융합과 더불어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적인 다학제적 협력으로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의 융합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 국제저명 학술지

Kim, S., Chae, J., & Nam, S. I. (2021). Changes in the Equity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Based on Coulter Index Differences for the Years 2000, 2008, and 2015.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16. (OnlineFirst) doi.org/10.1080/08959420.2020.185142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성요소인 시설 및 재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시간적 변화의 관점에서 확인한 연구임. 시간적 변화를 제도의 도입 초기(2000년), 실제 도입시기(2008년) 및 본 연구 시점(2015년)으로 나누어 각 시기 및 지역별로 존재하는 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모델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복지와 건강의 영역 간 통합 및 협력적 접근을 통하여 두 영역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였음. 또한 다양한 사례연구들과 함께 Coulter 지수를 통한 지역별 형평성 측정을 통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서,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상황들에 대한 정책 개선 및 학문적 이론 발전에 공헌함

○ 박수경 교수

- 국내 학술지

이성민, 박수경, 이진주, 남혜령. (2020). 경계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ICT 기반의 의사소통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12), 335-366.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음. 해당 연구를 통해서 경계선에 있는 발달장애인 성인을 포함하여 리빙랩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파악하였음. 이러한 시도는 종전의 탑 다운 방식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결정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직접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내 기술자, 정책 결정자,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신 사회적 문제 해결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해당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를 디자인하고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장애인 관련 지원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뿐만 아니라 등한시 여길수 있는 경계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도구를 개발했다는 것은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돕는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국제 저명 학술지

Kim, J. Y., Kim, J., Park, S., & Fear, N. (2021).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4, 638-644. doi.org/10.1016/j.jad.2021.07.010

-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된 본 논문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 는 우리나라 군인을 대상으로 군대 내 피해와 분노, 알콜 오남용의 관계를 파악하였음. 주요한 결과로 직장 내 피해가 분노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다시 알콜 오남용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해당 논문은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소속된 대상자의 피해와 관련한 정신건강과 이를 표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군이라는 특수하고 폐쇄적인 집단에 대해 그 취약함을 객관적

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대상자 중에서 등한시여길수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진행한 것에서 포용을 실천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군인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상황을 해외에 알리면서 최첨단의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군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 특히, 해당 저널은 우울이나 무드 스펙트럼 등 스트레스를 포함한 인간의 다양하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매우 가치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2021년 해당 저널의 Impact Factor는 4.839로 우수한 저널로 평가되고 있음

○ 송인한 교수

- 국내 학술지

이진혁, 송인한. (2020).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 한국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종단분석. 보건사회연구, 40(4), 401-436.

- 한국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이 유난히 낮은 이유가 이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 때문이라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임. 현재까지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취업률 또는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절적으로 분석하여 통합적인 제언을 하기 어려웠으며, 기존 연구들이 주로 횡단으로 분석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한계점을 벗어나 패널토빗분석을 활용하여 종단적 관계를 처음 본 혁신적인 연구임. 이 연구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들을 탐색하였음. 더욱이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해소될 때 취업률뿐만이 아니라 임금에도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에 부응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정신적 장애인이 경험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해 다기관·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 연구임. 보건사회연구는 2020년 기준 KCI IF(2년) 2.37로 전체 학문 분야 33위에 해당하는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최수찬 교수

- 국내 학술지

최수찬, 이은혜, 민진아, 성지은. (2020). 사회복지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조직차원 대처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3-26.

-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폭력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소외되어 온 사회복지종사자를 포용하여 이들의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조직차원의 혁신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 연구임. 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개별 사례 및 발생 맥락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라이언트 폭력에 의한 경험이 어떠한 경험으로 인식되고 어떠한 결과로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조직은 폭력 발생 시 클라이언트 입장이 아닌 사건 발생 맥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정한 문제 해결 및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음. 또한, 종사자의 폭력에 의한 심리적, 정신건강 측면에까지 접근하여 사회복지-정신건강-정책 등 다양한 학제간 협력을 통해 특화된 대응 마련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함

○ 최재성 교수

- 국내 학술지

양승민, 최재성. (2021).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이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존분석 -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 13년간 분석 -. 한국노년학, 41(4), 547-566.

-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을 포용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

도록 노인의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가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규명하였음. 또한, 연구대상의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임. 구체적으로 노인의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수명에 대한 사회적 활동 유형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제시함.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사용하여 노인의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수명을 인구 중 유병률 자료를 활용하여 비율적 계산한 기존 방법과 달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하여 산출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임.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 차이에 따른 노인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포용적 사회활동 관련 정책이나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헌함

【참여교수의 저서】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최근 1년 동안 국어 저서 4권, 외국어 저서 1권 발간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음. 해당 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월)	ISBN	참여 교수명	구분
2020년2학기 (‘2020.9.1~’2021. 2.28)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 : '빠른'을 넘어 '바른' ICT로	아담 Books (2021. 02.)	9791166032820	김재업	공저
2021년1학기 (‘2021.3.1~’2021. 8.31)	굿네이버스 30년사 vol.1 통사, 조직경영·모금사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2021. 03.)	9791185356389	강철희	공저
	사회역학(제2판)	한울아카데미 (2021. 03.)	9788946072879	송인한	공저
	차이나는 클래스 커뮤니케이션·심리 분석·뇌 과학 : 혼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의 과학 편	중앙Books (2021. 06.)	9788927812319	송인한	공저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Routledge (2021. 11.)	9780367417093	강철희	공저

○ 강철희 교수

- 굿네이버스 30년사 Vol.1통사, 조직경영 · 모금사

- 강철희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의 30년간의 모금과 조직경영 성과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 <굿네이버스 30년사> 저서 집필에 참여하였음. 해당 기관의 성과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국내 비영리 영역의 발전과 혁신에 이정표 역할을 함. 더불어 해당 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함을 통해 모금 참여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포용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 강철희 교수는 2021년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의 출판에 참여하였음. 본 저서는 총 7개 섹션과 39개 장으로 이뤄졌으며, 그 내용은 일시적 이벤트, 스포츠, 관광

분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최근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논쟁적인 이슈들을 파악하였음. 본 저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정리, 이벤트, 관광 및 스포츠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 동기 등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의 영향과 사회에 남기는 유산들, 자원봉사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이슈들, 자원봉사 관련 연구의 동향과 새로운 방향 제안 등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심화를 도모하였음.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모인 전세계 국가들의 대학교에 소속된 50여 명의 학자들이 자원봉사의 특수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조망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이 책은 Events, Sport and Tourism 영역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 영역 분야를 초월해서 이 주제 자원봉사의 연구와 실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이정표를 마련하였음

○ 김재엽 교수

-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 : '빠른'을 넘어 '바른' ICT로

- 김재엽교수는 2020년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를 여러 저자들과 함께 집필하였음. 본 저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진단함. 특히, 김재엽교수는 스마트폰과 청소년의 관계 중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의 추세와 특성 그리고 자살 경향성을 분석하여 코로나 시대에 더 위험에 놓인 청소년의 ICT 환경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제언을 통해 청소년의 바른 ICT 환경 구성 해법을 제시함. 본 저서를 통해 ICT의 활용에 대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길 기대되며, 이를 통해 혁신을 이끌 바른 ICT가 구현되는데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됨

○ 송인한 교수

- 사회역학(제2판)

- 사회역학은 공중보건학, 스트레스 연구, 의료사회학,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발전해왔으며, 본 저서 『사회역학(제2판)』은 지난 15년 간 발전해 온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들을 기술한 책임. 또한, 사회의 여러 영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사회역학의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였음. 한국의 사회역학 분야에 기여해 온 20여명의 연구자들이 본 저서 집필에 함께하였으며, 송인한 교수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응집성 그리고 건강' 파트의 번역과 감수를 담당하였음.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이 건강 증진에서 유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재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본 책은 사회역학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악된 결정요인을 개선하여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 차이나는 클래스 커뮤니케이션 · 심리 분석 · 뇌 과학 : 혼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의 과학 편
 - 본 저서는 JTBC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의 강연을 중심으로 발간된 책으로, 심리학, 정신분석학, 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문 분야 최고 석학들이 감정과 이성이 빚어내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살핀 책임. 본 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회에서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에 대해 논의하였음. 송인한 교수는 자살 분야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며 '자살도 예방이 되나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자살이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문제이며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 떨어진 팬데믹 시대인 만큼 사회복지 안전망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본 저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정서적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사회 협력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②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0.9.1.-2021.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Kang, C. H., Baek, Y. M., & Kim, E. H. J. (2021). Half a Century of NVSQ: Thematic Stability Across Years and Editors. <i>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i>, 1-22. (OnlineFirst) doi.org/10.1177/08997640211017676 본 연구는 비영리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인 NVSQ(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ly)에서 지난 50년간 출판된 논문들(1972-2019)에 대해 분석한 논문임. 논문의 주제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논문의 시기 구분에 맞춰서 분석하였음. 분석의 방법으로는 automated content analytic method의 방법, 더 구체적으로는 Structural Topic Modeling(STM)의 방법을 사용했음.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본 연구는 NVSQ에 출판된 논문들(1,516 articles)은 37개의 key thematic topic으로 주제가 파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37개의 주제에 기반해서 NVSQ의 역사적 발전의 구분을 3개의 시기로 나누고 각 주제에 대한 시기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주제에 대한 변화에 있어 편집인들의 영향력(disciplinary fields)이 어떠한지를 분석했음. 분석 결과, 37개의 주제들 중 29개의 주제는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8개의 주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발생되어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서 쇠퇴(decline) 혹은 새로운 증가가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었음. 이 논문은 새로운 분석 방법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의 방법을 적용해서 저널의 publication의 역사를 꿰뚫어 본 매우 혁신적인 연구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 저널은 현재 IF 지수 3.142이고 5년 IF 지수 4.120의 국제 저명 저널임
2	Nam, B., Kim, J. Y., & Bright, C. L. (2020). Exposure to family violence, peer attachment, and adolescent-to-parent violence. <i>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i>, 1-22. (OnlineFirst) doi.org/10.1177/0886260520960109 본 논문은 2010년 진행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709명의 청소년 표본을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정폭력과 부모폭력 간의 연관성을 밝힘. 연구결과, 아동학대 피해가 부모폭력 가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이 이 둘 사이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됨. 본 결과로부터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부모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힘.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는 부모폭력 가해자의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개입시 긍정적인 또래 관계 증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본 논문이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가정폭력 대물림을 예방함으로 포용적 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이 저널은 현재 IF 지수 6.144이고 5년 IF 지수 5.378로 대인간 폭력 분야에서 매우 권위있는 국제저널임
3	Kim, J. Y., Kim, J., Park, S., & Fear, N. (2021).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 <i>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 294, 638-644. doi.org/10.1016/j.jad.2021.07.010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군인을 대상으로 군대 내 피해와 분노, 알코올 오남용의 관계를 파악하였음. 주요한 결과로 직장 내 피해가 분노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다시 알코올 오남용

	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해당 논문은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소속된 대상자의 피해와 관련한 정신건강과 이를 표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군이라는 특수하고 폐쇄적인 집단에 대해 그 취약함을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대상자 중에서 등한시 여길 수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진행한 것에서 포용을 실천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군인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의 영향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상황을 해외에 알리면서 최첨단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군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음. 특히, 해당 저널은 우울이나 무드 스펙트럼 등 스트레스를 포함한 인간의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매우 가치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이 저널은 현재 IF 지수 4.839로 매우 권위 있는 국제 저널임
4	Kim, S., Chae, J., & Nam, S. I. (2021). Changes in the Equity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Based on Coulter Index Differences for the Years 2000, 2008, and 2015. <i>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i>, 1-16. (OnlineFirst) doi.org/10.1080/08959420.2020.1851428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성요소인 시설 및 재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시간적 변화의 관점에서 확인한 연구임. 시간적 변화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초기(2000년), 실제 도입시기(2008년) 및 본 연구 시점(2015년)으로 나누어 각 시기 및 지역별로 존재하는 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모델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복지와 건강의 영역 간 통합 및 협력적 접근을 통하여 두 영역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였음. 또한 다양한 사례연구들과 함께 Coulter 지수를 통한 지역별 형평성 측정을 통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서,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상황들에 대한 정책 개선 및 학문적 이론 발전에 공헌함. 이 저널은 현재 IF 지수 2.283이고 5년 IF 지수 2.426의 국제 저명 저널임
5	Nam, B., Kim, J. Y., Lee, Y., & Fedina, L. (2021).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i>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i>, 1-15(OnlineFirst). doi.org/10.1177/08862605211005146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성폭력피해와 파트너폭력의 연관성과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연구 부족의 필요성에 근거해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발생과 북한, 제3국, 남한 사회에서 경험한 폭력 피해의 연관성에 주목하였음.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140명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지난 1년간 파트너폭력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중 신체적, 성적 파트너 폭력피해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을 스크리닝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본 연구는 폭력피해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파트너 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 혁신적 연구임. 또한, 남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트너 폭력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개입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피해를 낮추는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하였음. 이 저널은 현재 IF 지수 6.144이고 5년 IF 지수 5.378의 국제 저명 저널임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신청서 기준 교육연구단의 산업·사회 문제해결 기여 계획			Key Performance
계층	계획 1.	나눔교육의 확산 모색	1. 굿네이버스 30년사 연구: <굿네이버스 30년사> 저서 발간
	계획 2.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개혁을 통한 저소득자 보호 강화에 기여	2. 불평등 해소 정책 DB 구축: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중심으로 연구
	계획 3.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표의 융복합적 연구를 통한 포용적인 사회 진입	3. 사회보험의 미래 존립에 관한 연구
	계획 4.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강화	4. 융복합 주제의 세미나 개최 논의 중임. (의학, 공학, 체육학, 간호학 융합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융복합 연구)
	계획 5.	감정노동자의 폭력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연구	5. 사회복지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계획 6.	리빙랩 방식의 확산으로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 제시	6. 장애인 대상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연구
성	계획 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 배제경험과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계획 2.	노년기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2. 노년기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세대간 통합	계획 1.	세대공존 연구	1. 노인 및 후속세대 간 공존을 위한 연구
	계획 2.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중심케어 연구	2.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중심케어 연구 진행
	계획 3.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SMiLE’ 및 ‘SMiLE 애플리케이션’ 보급	3. 노인을 대상으로 한 ‘SMiLE’ 및 ‘SMiLE 어플리케이션’ 효과성 검증
사회적 위험 해소	계획 1.	대검찰청 구성원 대상 갈등 감소 프로그램 개발	1. 장애인 가족의 사회정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진행
	계획 2.	발달장애 6개년 지원사업 통합성과 분석연구	2. 발달장애 6개년 지원사업 통합성과 분석연구 진행
	계획 3.	자살 및 건강불평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연구	3.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편 연구/통합적 자살모델의 국가간 비교에 대한 연구
	계획 4.	장기적 관점으로서 사회보험의 미래와 혁신에 관한 연구	4. 사학연금 재해보상 맞춤형 토탈 케어 기반 구축 연구 진행
	계획 5.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5.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를 위한 국내 기초 연구 진행

- 본 교육연구단은 “계층, 성, 세대간 통합, 사회적 위험 해소” 네 가지의 산업,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교육연구단은 “계층, 성, 세대간 통합, 사회적 위험 해소” 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를 통한 논문 발표, 저서 발간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주한 정부 연구 및 다양한 산업체 연구비를 수주하여 산학 협력적인 구조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본 교육연구단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

○ 성과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및 교육

- 강철희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의 30년간의 모금과 조직경영 성과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 <굿네이버스 30년사> 저서 집필에 참여하였음. 해당 기관의 성과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국내 비영리 영역의 발전과 혁신에 이정표 역할을 함. 더불어, 해당 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함을 통해 모금 참여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포용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사회보장보장제도 기능 개혁을 위한 연구

- 박수경, 김진수, 최재성 교수는 불평등 해소 정책 DB구축을 위하여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정책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함.
- 김진수 교수는 ‘사회보험의 미래 존립 연구 -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음. 본 연구는 사회보험이 앞으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 앞으로의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써 사회적 혁신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사회경제학적 변화가 사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이 성숙하고 안정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변화를 분석하고 사회보험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예상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보험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검증함.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보험체제는 현재 체제로는 도태되어 소멸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진화를 통하여 존립할 것인가 기로에서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보험의 체제 존립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새로운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여함

- 사회복지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 최수찬 교수는 감정노동자의 폭력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며,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통일된 매뉴얼 마련, 폭력에 대한 교육 등 조직 차원의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차원의 개선방안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장애인 대상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연구

- 박수경 교수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을 통해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 중임.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최점단의 기술(AI, Deep-Learning)등을 장애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적용하는 융복합적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경계성 발달장애인,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전통적인 사회복지지원과 함께 ICT와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결합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적용 중임.
- 향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적용하고자 함

○ 계획

- 포용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융복합 주제의 연구 세미나 개최 예정
 - 본 교육연구단은 위드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융복합적인 연구 시도를 지속해서 시도하고자 함. 의학, 공학, 체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을 포용할 수 있는 주제의 연구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표에 대하여 융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협력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현재 2022년 상반기 세미나 개최를 목표로 계획 중임
- 장애인 대상 리빙랩 방식의 연구 적용의 확대
 - 박수경 교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전통적인 사회복지지원과 함께 ICT와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결합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적용 중임 리빙랩 방식의 연구 적용을 확대하고자 함. 향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적용하고자 함
- ‘Religion and Episodic Volunteering’ 공저 진행
 - 강철희 교수는 현재 Episodic Volunteering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Religion and sodic Volunteer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저함. 해당 논문은 지속적인 양상이 아닌 일회적으로 혹은 가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의 장들을 비교 단위로 설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런 시민들에게서 어떤 양상이 파악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임
- 사회보장장제도 기능 개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김진수 교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농업인안전보험 운영방식 선진화에 관한 연구>를 수주하여 연구를 시작한 단계임. 이에 농업인 사회보험화 방안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Dr, Christina Hiessl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성

○ 성과

-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최재성 교수는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이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 대하여 생존분석을 시도하여 13년간의 종단적 변화 검증을 시도함과 동시에 성별 비교를 통해 사회활동이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를 연구하였음. 연구 결과, 건강수명 단축의 위험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남녀 건강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남석인 교수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함. 연구 결과, 노인 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일부 지표에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화 결과,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다중배제형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다중배제형에 속할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본 논문은 사별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로 인한 우울 수준을 낮추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한 법적·제도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 노인에 대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변화 조성에 기여함

-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 남보영 교수는 2020년 11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진행한 2020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배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음
- 남보영 교수와 김재엽 교수는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에 논문을 게재하였음.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성폭력피해와 파트너폭력의 연관성과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연구 부족의 필요성에 근거해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발생과 북한, 제3국, 남한 사회에서 경험한 폭력 피해의 연관성에 주목하였음.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지난 1년간 파트너폭력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중 신체적, 성적 파트너 폭력피해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을 스크리닝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본 연구는 폭력피해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파트너 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양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 혁신적 연구임. 또한, 남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트너 폭력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개입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피해를 낮추는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하였음
- 남보영 교수와 김재엽 교수는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Factors that distinguish suicide attempt from suicidal ideation.”라는 주제로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IF: 3.867)>에 게재하였음.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자살생각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을 조사하고, 자살생각을 하는 대상자의 자살시도를 촉발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음.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략 46%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년 동안 약 18%가 자살 시도의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은 사회적 고립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외상경험 노출이 적었음. 또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자살생각만을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예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남한사회 이주 후의 삶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차이를 야기함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현재 삶의 스트레스, 외상경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음.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 혁신적인 연구이며, 소외계층의 자살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음

○ 계획

- 일-가정 양립 지원이 부모-아동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최수찬 교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부모-아동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아동-가족 관계 변화 연구를 진행 중임

세대간 통합

○ 성과

- 노인 및 세대 간 공존 연구

- 남석인 교수는 노인학대, 그 중에서도 노인의 자기방임에 주목하여 노인의 삼킴장애와 우울, 그리고 자기방임 간의 경로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방임의 효과적 예방 방안 및 노년기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의미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노인성 삼킴장애는 노년기에 질환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며, 많은 노인들이 삼킴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혁신적인 융합연구로 진행하였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함께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함. 또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융합과 더불어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적인 다학제적 협력으로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의 융합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 남석인 교수는 가족 관계 내 노인과 자녀세대가 협력하여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 중임.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과 성인자녀관계만족의 관계를 부부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과 성인자녀관계만족도의 인과관계와 상호연관성을 검증하였음. 이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세대 포용적인 문화가 성립되기 위한 노인과 성인 자녀 세대의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중심케어연구

- 남석인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2차시범사업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연구 중임. 노인요양시설에는 의료 및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설치하여 의료 및 간호처치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양과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임. 이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인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거주자중심케어 서비스 혁신의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계획

- 노인을 대상으로 한 ‘SMiLE’ 및 ‘SMiLE 어플리케이션’ 효과성 검증

- 남석인 교수는 노인 삼킴 기능과 관련된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진행 중임. 2021년 11월 미국 Arizona에서 개최 예정인 GSA 2021 Annual Scientific Meeting에 “Feasibility study of a tablet-based intervention to enhance the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및 “Determinants of intervention to use digital technology for older adults by environmental dimensions” 연구의 발표가 초청됨. 두 연구는 융합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 노인의 포용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남석인 교수가 개발해 온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혁신적인 방법을 통하여 검증함. 이를 통하여 노년학 분야 세계 석학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연구의 발전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 남석인 교수가 연구·개발한 <SMiLE 척도>, <SMiLE 노인집단상담>,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 등은 삶의 의미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문적 성과물로 벨기에 KU르우벤 대학교 Jessie Dezutter 교수팀 및 대만국립대학교의 Peishan Yang 교수팀과 협력적 관계를 통한 공동 연구 및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사회적 위험 해소

○ 성과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정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박수경 교수와 김재엽 교수는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약하여 ‘서울시 장애인가족 내 비장애자녀의 사회정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 관계: 객관적·주관적 양육부담의 직렬 매개효과 검증’,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과의 관계 : 양육부담감과 부부간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된 매개효과’, ‘발달장애 자녀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부모의 양육 부담감 및 우울과의 관계: 종교활동 참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이라는 세 편의 논문을 출판하여 발달장애 자녀와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출판하였음.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사회정서적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을 갖춘 개입방법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 중임

- 발달장애 6개년 지원사업 통합성과 분석연구 진행

- 최재성 교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수주한 발달장애 6개년 지원사업 통합성결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6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발달장애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장기적 관점으로서 사회보험의 사회보험의 미래와 혁신에 관한 연구

- 김진수 교수는 사학연금의 재해보상 맞춤형 토달 케어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공무상 장애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에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중임.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장기적인 보장성을 담보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이바지함

- 자살 및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

- 송인한 교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제를 수주하여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편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통합적 자살모델의 국가간 비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빌뉴스대학 심리학과와 함께 리투아니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안전 및 손상 관리와 사망보고시스템에 관한 공동연구 중임
- 미국 최대 규모이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회인 미국보건학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148차 연례학술대회에서 ‘Influence of friends’,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on suicide ideation’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함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바른 ICT 환경 구성 해법을 제시

- 김재엽 교수는 2020년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를 공저하였음. 본 저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개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진단함. 특히, 김재엽교수는 스마트폰과 청소년의 관계 중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의 추세와 특성 그리고 자살 경향성을 분석하여 코로나 시대에 더 위험에 놓인 청소년의 ICT 환경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제언을 통해 청소년의 바른 ICT 환경 구성 해법을 제시하였음. 본 저서를 통해 ICT의 활용에 대하여 더 다

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길 기대되며, 이를 통해 혁신을 이끌 바른 ICT가 구현되는데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됨

-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 남석인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위기 속에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현장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질적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연구 결과, 환자의 경제적 위기 증가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행정 업무 확대, 환자와의 줄어든 접촉으로 인한 역할 축소, 직접 대면불가로 인한 네트워킹 축소, 온라인 교육 확대에 의한 현상 유지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사회복지사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감염병이라는 큰 변화를 통하여 위기를 기회 삼아 의료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역할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함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기 및 사회복지적 해결 방안 모색

- 송인한 교수는 2021년 2월 4일, 5일에 열린 ‘3Ps Beyond Security: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평화, 번영, 협력, 안보를 뛰어넘어)’에서는 코로나로 야기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 대해 국제협력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음
- 같은 해 5월 10일에는 ‘Human Rights and Peace of Myanmar’에 참여하여 UN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을 향한 국제적 노력의 하나로써 미얀마 현지 주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였음
-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로 전면 칼럼인 ‘송인한의 퍼스펙티브’를 집필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 『차이나는 클래스 커뮤니케이션·심리 분석·뇌 과학 : 혼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의 과학 편』저서를 공저하였음. 본 저서는 JTBC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의 강연을 중심으로 발간된 책으로, 심리학, 정신분석학, 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문 분야 최고 석학들이 감정과 이성이 빚어내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살핀 책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회에서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에 대해 논의하였음. 송인한 교수는 자살 분야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며 ‘자살도 예방이 되나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자살이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문제이며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 멀어진 팬데믹 시대인 만큼 사회복지 안전망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본 저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정서적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사회 협력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아동-가족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최수찬 교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부모-아동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아동-가족 관계 변화를 연구 중임.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처한 사회 구조적 특성이 아동-가족, 아동-부모간의 관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및 혁신의 필요성 및 노-사 협력을 통한 아동 가족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 계획

-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계획들은 현재 본 교육연구단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혁신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및 사업들이 진행 단계에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사업들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1년 동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 19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최근 1년 동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 19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본 교육연구단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 성, 세대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연구들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임

3.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진은 다양한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국제 저술 활동들에 참여하여 국제적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음

□ 강철희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연간 약 5조원의 모금을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federation 조직인 United Way 세계 본부의 이사직을 아시아인을 대표하여 수행해 오고 있음. 또한, 고액 기부금(major donor advised funds)의 지정기부에 대한 최고위 의사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지정기부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기부자에 대한 조언을 통해 기부를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선도하며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세계 각 나라의 사회문제 특성에 맞는 개입모델의 필요성과 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한 기부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기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음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미국비영리학회(ARNOVA: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선출직 이사(Elected Board Member)를 역임하였으며, 비영리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NVSQ(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rly)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으로 현재까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해 오면서 자선 및 비영리 연구 영역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자로 인정받고 있음

○ 국제 저술 활동

- 강철희 교수는 세계적 출판사인 Routledge 에서 출판한 저서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의 저자로 참여하여 London, Vancouver and

PyeongChang Olympics: a comparison of volunteer motivations의 장(chapter)을 맡아 저술함. 런던, 밴쿠버,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참여 동기와 관련하여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스포츠 이벤트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게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인간의 협력 역량과 사회참여에 기반한 이타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김재엽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학술대회인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rch(SSWR) Annual Conference에 다회 참여하여 포스터 및 구두발표를 진행함. 2019년도부터는 매년 연속적으로 참여하여 결혼이주여성, 탈북여성 등 소외계층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에 소외계층을 하여 더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SSCI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에서 reviewer로 논문 심사 활동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관련 분야 학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적 선진 연구 및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함

□ 김진수 교수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에서 발행되는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의 편집위원으로 한국과 유럽의 사회보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은 사회정책 및 관리 부문의 가장 오래된 저널로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전통에 충실하면서 세계각지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논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남보영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남보영 교수는 2021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학회인 SSWR(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에서 “Parental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in South Korea: Do Work-Life Balance Policies Work?”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실시함. 본 연구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장재직여성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음. 본 발표는 영유아기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주변부에 놓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으며, 일가정양립을 도모한 연구라는 점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
- 2021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학회인 SSWR(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에서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파트너폭력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음. 본 발표는 우리사회의 소외계층 집단이자 성에 기반한 폭력 피해노출 위험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포용적 복지 국가 구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다는 의의가 있음

□ 남석인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2020년 11월 개최된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GSA)는 노인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로 “Influence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f types of older adults’ daily time use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및 “ Identification of research trends in aging in place (AIP) using text mining analysis”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음. 두 논문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및 AIP에 대한 포용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각각 LPA 및 text mining 이라는 혁신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학자들과의 협력적인 학문적 교류를 하였음
- 남석인 교수가 연구·개발한 <SMiLE 척도>, <SMiLE 노인집단상담>,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 등은 삶의 의미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문적 성과물로 벨기에 KU르우벤 대학교 Jessie Dezutter 교수팀 및 대한민국립대학교의 Peishan Yang 교수팀과 협력적 관계를 통한 공동 연구 및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박수경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박수경 교수는 국제 학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22 SSWR 에 참여할 계획이며, 2022 SSWR에 총 2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초록을 접수하였음. 이를 통해 국내 장애인 관련 연구를 국제학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이외에도 미국 College of Social Work I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수로 재직 중인 Robert Hock 교수와 발달장애인 관련 국내와 미국의 연구 결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한 공동 논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송인한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현재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Director로 활동하고 있음. 2021년 2월 4일, 5일에 열린 ‘3Ps Beyond Security: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평화, 번영, 협력, 안보를 뛰어넘어)’에서는 코로나로 야기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 대해 국제협력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음. 같은 해 5월 10일에는 ‘Human Rights and Peace of Myanmar’에 참여하여 UN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을 향한 국제적 노력의 하나로서 미얀마 현지 주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였음
- 미국 최대 규모이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회인 미국보건학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148차 연례학술대회에서 ‘Influence of friends’,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on suicide ideation’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함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세계적 권위의 학술 논문지인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을 비롯하여 BMJ Sexual & Reproductive Health,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INQUIRY 및 Social work in Health Care 등 다양한 학술지에 심사위원(reviewer)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 보건 및 정신 보건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국제 협력 연구

- 2019년 연구년 활동부터 현재까지 리투아니아 국립 빌뉴스대학 의과대학 Institute of Health Sciences의 Visiting Professor 및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Visiting Scientist로 공동연구 진행 중임

□ 최수찬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사)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와 협력하여 2020년 제7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Work Organizational and Psychosocial Factors(ICOH-WOPS)의 한국 개최를 최초로 성사시킴. 1906년에 설립된 ICOH는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위원회로 유엔에서 인정하는 비정부기구(NGO)이며 국제 노동 기구(ILO)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ICOH-WOPS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으로 활동함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는 다양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위기계층 근로자들을 포용하여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전 세계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담아내고 혁신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학제간 협력을 견인하는 학술지로 학계에서 급부상하고 있음

□ 최재성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최재성 교수는 2021년 8월 23일에 진행된 International Symposium on JAMMU & KASHMIR AND LADAKH(인터내셔널 심포지엄,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 역학 발전과 미래 궤도)에서 Evolving Internal Security Situation and Challenges 세션에서 ‘Economic Success vs. Social Welfare: A case of Korea’ 라는 주제의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음.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강철희	<i>Pamala Wiepking</i>	<i>USA / 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i>	Global Philanthropy: Does Institutional Context Matter for Charitable Giving?	<i>doi.org/10.1177/0899764021989444</i>
		<i>Femida Handy</i>	<i>Netherlands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i>		
2	남보영 김재엽	<i>DeVylder J.</i>	<i>USA/ Fordham University, NY</i>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Factors that distinguish suicide attempt from suicidal ideation.	<i>doi.org/10.1111/sltb.12742</i>
3	남보영 김재엽	<i>Charlotte Lyn Bright</i>	<i>USA/USA/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MD</i>	Exposure to family violence, peer attachment, and adolescent-to-parent violence.	<i>doi.org/10.1177/0886260520960109</i>
4	김재엽 박수경	<i>Nicola Fear</i>	<i>UK/ Director of the King's centre for Military Health Research, King's College London, London</i>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	<i>doi.org/10.1016/j.jad.2021.07.010</i>
5	남보영 김재엽	<i>Fedina L.</i>	<i>USA/ University of Michigan, MI</i>	Nam, B., Kim, J. Y., Lee, Y., & Fedina, L. (2021).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i>doi.org/10.1177/08862605211005146</i>
6	강철희	<i>Sophie E. Hersberger-Langlois</i> <i>Georg von Schnurbein</i>	<i>Switzerland /University of Basel</i>	For the Love of Art? Episodic Volunteering at Cultural Events.	<i>doi.org/10.1007/s11266-021-00392-0</i>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신청서 기준 교육연구단의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계획		Key Performance
계획 1.	최정예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의 1:1 매칭교류	- UMSSW 연구진과의 1:1 매칭교류 및 연구 세미나 진행 (2021-1학기 3회 진행/ 2021-2학기 3회 진행 예정) - UMSSW와 본 대학원 연구진의 공동 컨퍼런스 진행 예정 - UMSSW와 본 대학원 연구진의 1:1 매칭 연구 관련 지원 계획(연구 관련 행정, 예산 등 지원)
계획 2.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공동저술 준비	- Hand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s and Tourism 공저 완료 및 출판 예정
계획 3.	Episodic Volunteering에 대한 Voluntas 특별호 게재 공동저술 준비	- 'Religion and Episodic Volunteering', 'Human Service Organizations: Leadership, Management & Governance' 공저 진행 중임
계획 4.	스위스 산재보험 공단(SUVA)과 독일 직업조합(DG)와 지속적 교류를 통한 산재보험 발전 방안 연구	- 농업인안전보험 운영방식 선진화에 관한 연구 진행
계획 5.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 사학연금의 재해보상 맞춤형 토탈 케어 기반 구축 및 신규사업을 구축하는 국제 공동 연구 진행
계획 6.	노인 삶의 의미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 GSA 2021 Annual Scientific Meeting에서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두 편에 대한 구두 학술 발표 예정 - 노인 삶의 의미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 진행
계획 7.	통합적 자살모델의 국가간 비교	- 국내외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진행
계획 8.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진행

□ 최정예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의 매칭 및 연구 특강 세미나 진행

○ 최정예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의 1:1 매칭 교류를 통해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이를 통해 2021년 1학기동안 3회의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본교 교수진과 UMSSW 연구진, 본교 학생들이 대담 형식으로 연구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동 관심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 현재까지 진행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연구 특강 세미나, 공동 컨퍼런스, 연구 지원 진행 예정임

- 송인한 교수와 매칭하여 연구 교류 중인 정신건강·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Paul Sacco 교수는 'Problem Gambling and Credit Counseling'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도박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도박중독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고취하였으며, 연구자 간 협력 및 소통의 가치를 이끌어냈음. Paul Sacco 교수는 도박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병적으로 중독될 위험이 높다는 특징으로 인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Paul Sacco 교수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도박중독자들을 위해 혁신적인 IT 기술

(text-message)을 활용한 상담 및 개입방안을 제안하였음. 학생들은 Paul Sacco 교수의 특강을 통해 도박중독이란 사회문제가 학문과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접하고 한국사회에서 취약한 이들을 포용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음

- 김진수 교수와 매칭하여 학문적 관심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Corey Shdaimah 교수는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bottom-up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음.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아동의 인신매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bottom-up 접근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미국의 사례를 접하며 양국 교수와 학생들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동은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bottom-up 방식의 복지정책 수립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음. 사회복지정책이 하향식으로 수립되어 전달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혁신적 정책과정을 배울 수 있었음
- The Univ.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학장으로 재직 중인 Judy Postmus 교수는 한국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사회복지 연구방법인 CBPR를 소개함. CBPR은 지역주민이 연구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연구과정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한 연구방법임. 새로운 연구방법을 접하는 세미나에서 동 대학 같은 소속의 안학순 교수의 통역이 더해져 학생들이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수-학생 간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했음. 연구자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연구 참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연구 참여를 독려하는 CBPR을 접하면서 포용적 학문 실천의 역량을 함양하였음
-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과의 매칭 연구 사업은 매칭 교수 간 연구 주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1년 2학기 내 UMSSW 연구진, 본 대학원 연구진과 본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를 3회 진행 예정임. 더불어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이 교류 진행 중인 연구 발표를 위하여 2022년도 상반기 국제 컨퍼런스 진행을 논의 중임. 이를 통해 연구진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복지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참여교수별 실적 및 계획

○ 강철희 교수

- 강철희 교수는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hilanthropy의 저자들과 함께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을 공동 저술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출판될 예정임. 본 저서는 올림픽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속성은 일반자원봉사자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연 그런 양상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해 보는 연구들을 집합적으로 다룬 내용임
- 현재 Episodic Volunteering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Religion and Episodic Volunteer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저함. 해당 논문은 지속적인 양상이 아닌 일회적으로 혹은 가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의 장들을 비교 단위로 설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런 시민들에게서 어떤 양상이 파악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임

○ 김재엽 교수

-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수행된 한미특별협력사업 및 Global Network 사업을 통

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국제적 군사회복지 연구팀과의 학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이를 기반으로 미국 USC의 Carl Castro 교수, 영국 King 's college의 Nicola Fear 교수, 이스라엘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의 Mona Khoury-Kassabri 교수와 공동연구 진행 중임. 그 결과로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2021)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함

○ 김진수 교수

- 오스트리아 산재보험 공단(AUVA)과 국제 심포지움 기조발제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국제적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함. 향후 유럽 산재보험 기관 중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AUVA), 스위스 산재보험 공단(SUVA)과 독일 직업조합(DG)와 지속적 교류를 통한 산재보험 발전에 기여함
- 2021년 6월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위탁을 받아 사학연금 재해보상에 있어서 예방·보상·재활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법 연구소의 Prof.Dr Julia Eichinger 교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Dr, Christina Hiessl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인안전보험 운영방식 선진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진행 중임. 농업인 사회보험화 방안과 현 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위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Dr, Christina Hiessl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남보영 교수

- 남보영 교수는 2021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학회인 SSWR(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에서 “Parental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in South Korea: Do Work-Life Balance Policies Work?” 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실시함. 이를 통해 현재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초등학교에 진입한 학령기 아동을 둔 직장여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언하였음. 또한, 일가정양립정책에 취업모의 심리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와 같은 정책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본 발표는 영유아기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주변부에 놓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으며, 일가정양립을 도모한 연구라는 점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
- 남보영 교수는 2021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학회인 SSWR(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에서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파트너폭력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음. 본 발표는 우리사회의 소외계층 집단이자 성에 기반한 폭력 피해노출 위험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포용적 복지 국가 구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음. SSWR에서 진행한 발표 이후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에 논문을 게재하였음

○ 남석인 교수

- 남석인 교수는 2020년 11월 개최된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GSA)는 노인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로 “Influence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f types of older adults’ daily time use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및 “ Identification of research trends in aging in place (AIP) using text mining analysis”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음. 두 논문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및 AIP에 대한 포용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각각 LPA 및 text mining 이라는 혁신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학자들과의 협력적인 학문적 교류를 하였음

- 2021년 11월 미국 Arizona Phoenix에서 개최 예정인 GSA 2021 Annual Scientific Meeting에 “Feasibility study of a tablet-based intervention to enhance the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및 “Determinants of intervention to use digital technology for older adults by environmental dimensions” 연구의 발표가 초청됨. 두 연구는 융합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 노인의 포용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남석인 교수가 개발해 온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혁신적인 방법을 통하여 검증함. 이를 통하여 노년학 분야 세계 석학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연구의 발전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 남석인 교수가 연구·개발한 <SMiLE 척도>, <SMiLE 노인집단상담>,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 등은 삶의 의미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문적 성과물로 벨기에 KU르우벤 대학교 Jessie Dezutter 교수팀 및 대한민국립대학교의 Peishan Yang 교수팀과 협력적 관계를 통한 공동 연구 및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박수경 교수

- 박수경 교수는 2022 SSWR에 참가하기 위하여 총 2편의 연구 결과에 대한 구두 발표 초록을 제출한 상태임. SSWR 참가를 통해 국내 장애인 관련 연구를 국제학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 박수경 교수는 미국 College of Social Work I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수로 재직중인 Robert Hock 교수와 발달장애인 관련 국내와 미국의 연구 결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한 공동 논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송인한 교수

- 송인한 교수는 2021년 2월 4일, 5일에 열린 ‘3Ps Beyond Security: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평화, 번영, 협력, 안보를 뛰어넘어)’에서는 코로나로 야기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 대해 국제협력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음. 같은 해 5월 10일에는 ‘Human Rights and Peace of Myanmar’에 참여하여 UN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을 향한 국제적 노력의 하나로써 미얀마 현지 주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였음. 미국 최대 규모이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회인 미국보건학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148차 연례학술대회에서 “Influence of friends’,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on suicide ideation”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함
- 송인한 교수는 2019년 연구년 활동부터 현재까지 리투아니아 국립 빌뉴스대학 의과대학 Institute of Health Sciences의 Visiting Professor 및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Visiting Scientist로 공동연구 진행 중임.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Ichiro Kawachi 교수의 Social Epidemiology를 공동 번역하여 2021년 3월 출판하였음

○ 최수찬 교수

- 최수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진행 중임. 연구책임자인 캐나다 원저대학의 Jayashree Mohanty 교

수를 비롯하여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 4개국 연구자가 참여하는 Coping, Family, & Social Well-being during COVID-19: Cross-National Research on Families의 국제 비교 연구에 한국 측 대표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음. 시도별 확진자 현황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차(1,000명), 2차(1,000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현재 1, 2차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이 중 1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윤수경 교수(미국 와이오밍 대학교)와 공동저자로 “Moderating Effects of Loneliness on COVID-19-Related Stress and Anxiety in Middle and Later Life in South Korea”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 중임. 또한 해당 논문을 발전시켜 2021년 11월에 개최하는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GSA) 2021 Annual Scientific Meeting에서 발표할 예정임

○ 최재성 교수

- 최재성 교수는 2021년 8월 23일에 진행된 International Symposium on JAMMU & KASHMIR AND LADAKH(인터내셔널 심포지엄,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 역학 발전과 미래 궤도)에서 Evolving Internal Security Situation and Challenges 세션에서 ‘Economic Success vs. Social Welfare: A case of Korea’ 라는 주제의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음

Ⅲ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교육연구 단(팀)명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사업단
교육연구단 (팀)장명	남석인

연번	구분	언론사명 /수상기관 등	보도일자/ 수상일자 등	제목/ 수상명 등	관련 URL
		주요내용 (200자이내)			
1	행사	메디컬투데이	20.09.03	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 정책 웹세미나 개최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8066
		송인한 교수가 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개최한 자살예방 정책 웹세미나에서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2	기타	중앙일보	20.09.28	[송인한의 퍼스펙티브]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완전한 해결 더 미루지 말아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882410
		송인한 교수는 이 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10주기를 앞두고 관리와 피해대처에 실패하고 문제 발생 이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에 완전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음			
3	기타	브릿지경제	20.10.06	건강보험 환급금 1300억, 보험사 주머니로...금융위 “타당” VS건보 “부적절”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1006010000548
		김진수 교수는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하여 보험사가 환급금을 제하는 건 타당하다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되기에 오롯이 보험사의 이득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함.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소수에만 적용되는 만큼 이를 크게 확대해 실효성을 키우면 보험료도 낮아지고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 지출까지도 집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언급함			
4	기타	농수축산신문	20.10.08	재해 걱정없는 농업을 만들자 ① 농작물·가축·농업인안전보험 운영실태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35
		김진수 교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하여 “농업인이 직업병을 가졌을 때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해진 인력을 보충해줘야 하며 농업인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활동도 중요하다”면서 “농업인안전보험의 문제는 농업·농촌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			

5	기타	한경닷컴	20.10.24	“ ‘라면 형제’ 사망에 대책 만든다”는 여야…“실현성 높여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441457
		김진수 교수는 “아동에 대한 문제를 가정이 1차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여건도 없이 아이를 방임했으니 책임지라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가가 가정에 개입하는 전제는 무엇보다 재정 책임”이라며 “‘당신이 애를 키울 때 이 정도 재정은 책임져줄 테니 확실하게 돌보라’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함			
6	행사	미디어리퍼블릭	20.10.26	굿네이버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연구 발표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84
		송인한 교수가 한국사회복지학회-굿네이버스에서 주최한 2020 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웨비나에서 좌장으로 참여해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동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음			
7	기타	조세금융신문	20.11.09	“또 조현병”...23년간 조현병 딸 간호한 母, 비극적 선택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4881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돌보다 결국 딸의 목숨을 뺏은 '모'의 사건에 대해, 송인한 교수는 현재는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생길 때만 대응적 차원에서 대책이 급조됨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치료와 보호를 위한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			
8	성과/행사	헤럴드저널	20.11.11.	기사 제목: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 날 맞아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개최 상곡인권상대상수상함	http://www.herald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5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발전에 헌신한 지장협 고(故) 장기철 초대회장의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상곡인권상 대상은 최재성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함. 최 교수는 장애인 대상 기관 업무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복지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 활동으로 권리 증진에 기여하였음			
9	기타	경향신문	20.11.21	자살 이후, 자살생존자가 남는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1211119021
		송인한 교수는 이 기사에서 소속 연구팀의 ‘자살생존자 정신건강 추적연구’ 결과, 일반인에 비해 가족, 친구, 지인 등의 자살에 노출된 경우 자살생각이 높음을 보여주며 자살생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함을 논하였음			
10	기타	경향신문	20.11.22	“한 사람 극단적 선택에 평균 20명 영향, 한국은 더 심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20847

					001&code=940100
		송인한 교수는 1명의 극단적 선택으로 평균 20명 정도의 주위 사람들이 자살생존자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관계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자살생존자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실천적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함			
11	기타	주간경향	20.12.02	[취재 후] “우리 모두는 자살생존자”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011271553041&pt=nv
		송인한 교수팀이 수행한 '자살생존자 추적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 모두는 자살생존자라며 자살생존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중요성이 언급하였음			
12	기타	에이블뉴스	20.12.11	성인기 비장애형제자매 심리·정서적 지원필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14&NewsCode=001420201211165730028349
		박수경 교수, 동대 이성민·서경주 연구원은 11일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최한 2020 서울시가족지원센터 사업공유회에서 ‘성인기 비장애형제자매의 사회정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13	기타	중앙일보	20.12.14	[리셋 코리아] 20대 여성의 극단 선택, 국가는 심각하게 응답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944663
		코로나 위기 속 늘어나는 여성 자살률에 대해, 송인한 교수는 여성이 겪어온 성차별, 고용 불안정, 빈곤의 여성화 문제 등 근본적 원인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함			
14	기타	한국일보	20.12.14	[단독] 방배동 모자 사건이 보여준 '성긴 복지망'... 공공요금 연체에도 무관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310170000186?did=NA
		발달장애인 아들과 살다가 숨진 방배동 모자 사건에 대해, 송인한 교수는 치밀하지 못한 복지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 지원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음			
15	기타	중앙일보	20.12.21	[송인한의 퍼스펙티브] ‘코로나 블루’는 몸과 마음과 사회를 잠식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0529
		송인한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외로움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정책 촉구와 함께 개인 차원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16	행사	뉴스투데이	20.12.23	임이자 의원, ‘농업인 재해 안전망 마련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0122350039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으로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농업인 재해 안전보험의 진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진행됨			
17	행사	한국농어민신문	20.12.30	“농업인안전보험, 국가 사회보험 전환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896
		농업인 안전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김진수 교수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국가적 사업으로 높은 보조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민영보험으로 운영돼 농민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확대 또는 야기하고 있다”면서 “농협운영은 근본적 개선 없이는 목적달성에 한계”라고 진단함. 이에 따라 그는 “단기적으로 농협이 개혁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농민사회보험공단으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함			
18	기타	이투데이	21.01.19	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86180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연대기금에 대하여 김진수 교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업인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몇 년이 지나서야 민간 참여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회연대기금은 단기적 이슈인 코로나19가 계기라 다른 경우로 보인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영속성을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19	기타	뉴시스	21.01.24	[군사대로]참모총장-주임원사 충돌로 부각된 부사관, 그들의 고충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2_0001314890&cID=10301&pID=10300
		본 기사는 군대 내 부사관의 고충과 관련된 기사로 김재엽 교수의 '군 초급 부사관의 직무불안정성과 우울의 관계' 논문이 인용됨			
20	기타	이투데이	21.02.09	이낙연 “이익공유제, 공제율 20% 이상으로”…학계 “조삼모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379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력이익공유제에 관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현행 10% 법인세액 공제율을 20% 이상 올리자는 제안에 대하여 김진수 교수는 “정부가 민간기업이 기금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굉장히 세게 해서 기업이 절세로 아예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함			
21	기타	이투데이	21.02.1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3589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율 및 실업급여 인정 범위의 현실에 대하여 김진수 교수는 “고용보험은 본래 목적대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집중하고, 자영업자는 사업 밀착을 정부가 지켜주는 등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공적부조를 하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22	기타	중앙일보	21.02.16	설 지나도 마음은 불편…부모-자	https://news.joinsonline.com

				식간 관계 개선하는 ‘대화의 기술’	com/article/23993099
		부모와 자식간 관계를 개선하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송인한 교수는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를 동등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대화 시 피해야 할 대화법 등에 대해 제안하였음			
23	기타	이데일리	21.03.11	“의료비 부담 가게 파탄 막겠다” 文케어…건보적자·비급여 문제는 진행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0646628982336&mediaCodeNo=257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개인 및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김진수 교수는 “민간 병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는 그 특성상 근절하기 어렵다”며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을 통해 낭비되는 보험금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함			
24	기타	KBS	21.03.15	자살 유가족 우울 위험 18배↑… ‘원스톱 지원’ 절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8648&ref=A
		송인한교수는 이 기사에서 매년 대량으로 발생하는 자살 유족에 비해 원스톱 서비스 예산이나 인력 등이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함			
25	기타	동아일보	21.03.16	공시가 뛰면 건보료도… 127만 가구 11월부터 올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6/105894381/1
		정부는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과세표준에서 50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상승을 막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김진수교수는 “일부 과세표준 공제보다 재산등급 기준을 올려야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함			
26	기타	이데일리	21.03.17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베르테르’ 효과 우려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2486628984304&mediaCodeNo=257&OutLinkChk=Y
		송인한 교수는 자살이라는 문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 외엔 방법이 없고 자살 행동 자체를 막는 응급조치적 접근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음			
27	성과/행사	중앙일보 외 4건	21.03.26	글로벌 아동관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30년사> 발간	https://news.join.com/article/24021257
		2021년 3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굿네			

		이버스 30년사>를 발간하였음. 본 저서는 총 2권으로 이뤄졌으며, 1권에는 통사와 조직경영 및 모금의 역사를, 2권에는 사업의 역사와 성과가 정리되어 있음. 강철희 교수는 조직경영 및 모금 부문을 맡아 책임 집필하였으며, 굿네이버스의 조직경영과 모금사업의 30년 역사를 심도있게 조명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28	기타	매일경제	21.04.06	여야 서울시장 후보 현금 살포 경쟁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27243/
		김진수 교수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복지·사회 공약 평가를 시행함. “박영선 후보는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점을 보완한다면 가치가 있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오세훈 후보는 전체적인 공약과 세부 공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서도 “‘안심 병원 동행’ 등 공약에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고민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29	기타	정신의학신문	21.04.25	가장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건 언제나 가족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887
		가장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건 언제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이호선 정신의학 전문의가 가족의 심리학 연재 기사에 김재엽 교수의 2007년 ‘부부폭력 가해자인 아버지들의 학대’ 관련 연구가 인용됨			
30	기타	MBN	21.05.16	‘평생 남는 트라우마’...극단적 선택 유가족 돕는 자조모임은 태부족	https://www.mbn.co.kr/news/society/4503735
		극단적 선택 유가족 자조모임과 관련하여, 송인한 교수는 유가족이 이 모임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공감을 받고 다른 사람 또한 돌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논하였음			
31	성과/행사	중앙일보 외 7건	21.06.11	굿네이버스,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 개최	https://news.join.com/article/24079947
		강철희 교수는 2021년 6월 17일, 굿네이버스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에서 ‘굿네이버스 모금의 진화’를 주제로 강연하였음. 강철희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이끌어온 굿네이버스만의 모금 노하우 등을 강연하였음			
32	성과/행사	조선일보	21.06.17	[굿네이버스 30년] ⑤기부금 30년 새 1500배 성장시킨 ‘모금의 기술’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6511
		2021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 굿네이버스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인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30년의 발자취’의 마지막 연사로 나섰던 강철희 교수는, ‘굿네이버스 모금의 진화’를 주제로 강연하였음			
33	칼럼	중소기업뉴스	21.06.28	중소기업 지속성장의 열쇠 ‘CSV’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09

		강철희 교수는 2021년 6월 28일, 중소기업뉴스에 ‘중소기업 지속성장의 열쇠 ‘CSV’ ’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였음. 강철희 교수는 칼럼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더욱 힘든 사회경제적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속성장의 열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활동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화에 중소기업들이 적응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창출시킬 수 있기를 제언함			
34	행사	연합뉴스	21.06.28	반도체 산업 환경경영 전문가 포럼 개최	https://www.yna.co.kr/view/PYH20210628223800848?input=1196m
		송인한교수가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삼정KPMG에서 개최한 반도체 산업 환경경영 전문가 포럼에 패널 토론 참가자로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경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음			
35	기타	동아일보	21.07.03	“딸 잃은 아픔 저도 알아요” ... 서로를 품는 극단선택자 유족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03/107766943/1
		늘어나는 극단적 선택 유족을 위한 개입에 대해, 송인한교수는 유족에 대한 낙인이거나 사회적 편견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이들이 더 빨리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 개선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36	기타	평화신문	21.07.13	20대 여성들의 목소리 “애들아 우리 죽지 말자”	https://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05753&path=202107
		코로나 블루에서 늘어나는 20대 여성의 자살률에 대해, 송인한 교수는 2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성차별과 고용의 불안정성, 여성에 대한 폭력 등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37	성과	TV조선	21.08.03	직업군인 '위험 음주율' 일반성인의 2.5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03/2021080390072.html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됨. 장기근속 간부 10명 중 4명 꼴인 37.1%가 위험음주에 해당돼 국민건강통계(2018)의 19세 이상 성인 고위험음주율인 14.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원인으로 계급승진에 대한 압박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술에 관대한 군 문화, 면세로 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 연구팀은 “군대 내에서 지각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가정으로까지 영향력이 전이 되어 부부 간 만족도를 낮추면서 더욱 더 위험음주가 증가한다”면서 “가족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번 연구 결과는 미래사회복지연구 학술지 제12권 제			

		1호에 실림			
38	성과	내일신문	21.08.13	건기 명상, 암환자 우울감 낮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808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안녕감이 암환자의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유일 연구원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에서 영적인 안녕감의 의미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39	성과	내일신문	21.08.13	암환자 부양가족 부담, '공식적 지지'로 완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807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와 황호경 교수 연구팀이 암환자 부양가족 19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암환자 부양가족의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남. 암환자 부양가족의 가구소득수준과 우울의 관계에서 공식적 지지는 암환자 가족과 같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체계로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의 전문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지원 체계임을 확인함. 연구팀의 배성훈 연구원은 "한국판 가족돌봄제공자법과 같은 법 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부양가족들이 정서적으로 겪는 우울, 고립,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지 그룹을 조성하고,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휴식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지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을 제안함			
40	기타	뉴데일리	21.08.30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0/2021083000124.html
		김진수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하여 "사회복지의 정치 종속화"라고 평가했음. 이는 정치가 사회복지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공약을 진심으로 발표한다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줄이면서 쓸 것인지 말해야 한다"며 "후세대가 부담을 안 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함			